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가정학석사 학위논문

20-30대 아버지들의  
자녀 돌봄 경험과 의미 탐색

A Study on the Child Care and Its Meaning for  
Fathers in Their 20s and 30s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박상욱

20-30대 아버지들의  
자녀 돌봄 경험과 의미 탐색

지도교수 김영주

이 논문을 가정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8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박상욱의 가정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박 혜 원      ㉠

심 사 위 원      정 민 자      ㉠

심 사 위 원      김 영 주      ㉠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22년 8월

## 국 문 초 록

# 20-30대 아버지들의 자녀 돌봄 경험과 의미 탐색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박 상 욱

본 연구는 20-30대 아버지들의 자녀 돌봄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현대사회의 영유아를 둔 20-30대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아버지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30대 아버지들의 자녀 돌봄에 관한 인식 변화는 어떠한가’, ‘20-30대 아버지들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어떠한가’, ‘20-30대 아버지들의 더 나은 아버지 되기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 1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주요 관심 현상에 대하여 공통된 주제에 관한 의미를 밝히는 데 유용한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 분석 6단계의 절차를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20-30대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자녀 돌봄, 20-30대 아버지들이 경험한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남편으로서의 역할’,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미를 탐색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30대 아버지들의 자녀 돌봄에 관한 인식은 ‘암묵적 돌봄 방관자’와 ‘적극적 돌봄 참여자’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원가족에서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계 부양’을 책임지고 육아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가부장적’이고 엄격한 훈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 돌봄 참여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둘째, 20-30대 아버지들이 경험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놀이 친구’, ‘추억 저장소’, ‘발달 조력자’로 나타났으며,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아내 마음에 스며들기’, ‘아내의 손발 되어주기’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돌봄에서 놀이 친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녀와의 추억을 기록하였으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또한,

남편으로서 아내의 마음을 항상 확인하고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아내의 손발이 되어 가사를 분담하고 아내의 고된 육아를 덜어주고자 하였다.

셋째,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방안’으로는 ‘스스로 성장하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 ‘자녀 돌봄을 위한 적극적 노력’ 및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자녀 돌봄을 위한 사회적 지원’으로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법적 제도 개선’, ‘사회적 가치 공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30대 아버지의 자녀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30대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를 지원하고 자녀 돌봄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자녀 돌봄을 위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아버지의 돌봄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된다. 둘째, 20-30대 아버지들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을 자녀 돌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었으므로 남성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와 노동 환경의 개선, 사회적 인식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다양한 직업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녀 돌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직장 내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의 정착으로 이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20-30대 아버지들의 아버지 자녀돌봄 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하고 아버지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영유아 자녀를 둔 20-30대 아버지의 적극적인 자녀 돌봄 참여자 역할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 목차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문제 .....	5
<b>II. 이론적 배경</b> .....	<b>6</b>
1.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 .....	6
1) 전통적 문화에 기반한 아버지의 자녀 돌봄 .....	6
2)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아버지의 자녀 돌봄 .....	7
2. 아버지 역할 내용의 변화 .....	11
1) 자녀 양육지원자 .....	11
2) 아내의 동반자 .....	13
3. 아버지의 긍정적인 자녀 돌봄을 위한 노력 .....	16
1) 개인 스스로의 노력 .....	16
2) 사회적 지원 .....	18
<b>III. 연구방법</b> .....	<b>20</b>
1. 연구방법의 선정 .....	20
2. 연구참여자의 선정 .....	21
3. 자료 수집 .....	23
1) 문헌연구 .....	23
2) 심층면담 .....	23
3) 자료의 보관 및 기록 .....	25
4. 자료 분석 .....	26
5. 자료의 진실성 검증 .....	26
6. 윤리적 고려 .....	27
<b>IV. 연구 결과</b> .....	<b>28</b>
1. 20-30대 아버지들의 자녀 돌봄에 관한 인식 변화 .....	28
1) 암묵적 돌봄 방관자 .....	29
(1) 생계 부양 중심 .....	29
(2) 가부장적 아버지 .....	30
2) 적극적 돌봄 참여자 .....	34

(1) 관계를 위한 첫 단추 .....	35
(2)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 .....	41
2. 20-30대 아버지들이 경험한 ‘아버지로서의 역할’ .....	47
1) 아버지로서의 역할 .....	48
(1) 놀이 친구 .....	48
(2) 추억 저장소 .....	50
(3) 발달 조력자 .....	51
2) 남편으로서의 역할 .....	53
(1) 아내 마음에 스며들기 .....	54
(2) 아내의 손발 되어주기 .....	55
3.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방안 .....	57
1) 스스로 성장하는 아버지 .....	58
(1) 자녀 돌봄을 위한 적극적 노력 .....	58
(2) 휴식과 재충전 .....	62
2) 자녀 돌봄을 위한 사회적 지원 .....	63
(1)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	63
(2) 법적 제도 개선 .....	65
(3) 사회적 가치공감 .....	70
<b>V. 결론 및 제언 .....</b>	<b>72</b>
1. 결론 .....	72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	80
<b>참고문헌 .....</b>	<b>82</b>
<b>부    록 .....</b>	<b>91</b>
<b>Abstract .....</b>	<b>93</b>



## 표 목 차

<표 1> 연구참여자의 배경 정보 .....	22
<표 2> 주제에 따른 심층면담 질문 .....	24
<표 3> 자료의 보관 및 기록 .....	25
<표 4> 본 연구의 주제 분석 과정 .....	26
<표 5> 20-30대 아버지들의 자녀 돌봄에 관한 인식 .....	28
<표 6> 20-30대 아버지들이 경험한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남편으로서의 역할’ 47	
<표 7>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방안 .....	57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성별에 따라 가족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 경계가 뚜렷했다(황동진, 2020). 특히, 남아선호사상과 가부장제로 인해 여성에게 양육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에서 생계부양자의 주요 주체는 남성이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성별에 따른 역할 분리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가정의 생계 활동과 자녀 돌봄에 관한 성 역할 분업의식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경제부양자로서 유지해 온 아버지의 단독적이고 지배적인 권위를 무너뜨리고, 정서성과 친밀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아버지 역할을 대두시키는 계기가 되었다(Connell & Messerschmidt, 2005; Pleck, 2010).

전통사회에서 아버지는 경제적 측면을 담당했고, 어머니는 가사활동을 전담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부모의 역할 간 차이가 모호해졌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남성의 양육 및 가사활동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버지의 역할 및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새로운 이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자녀 양육에 관한 일 또한 역할분담 내지는 역할 공유로 변화하게 되었다(김성민, 2018).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정 내에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수행할 사람이 부족해짐에 따라 이를 함께할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역할 공유가 절실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육아나 가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정 내 지지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안수미, 2013).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선행 연구에서도 아버지 역할과 중요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영유아의 인지, 신체, 정서, 사회성 발달, 학업성취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면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도남희, 2013; 배호중, 2015; 허영림, 2006). 또한,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참여 시간이 적더라도 그 영향력은 어머니의 영향력과 비슷하고(Lamb, 2010),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자녀의 인지적 학습 능력, 성역할, 성취동기, 사회적 능력 발달 등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유은정, 2015). 유아는 어머니와의 놀이보다 아버지와 놀이에서 상호작용을 더 기대하는데, 어머니와의 놀이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데 비해 아버지와 놀이는 활동적이고 비규칙적이기 때문에 유아의 흥미와 몰입을 높여준다고 한다(Prutt, Nangle, & Bailey, 2000). 아버지와 유아의 놀이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아버지와 자녀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게 해준다

(최영미, 2018). 또한,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경험과 양육참여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성민, 2018).

이처럼 선행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주는 긍정적 효과가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버지들이 직면한 자녀양육의 상황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은 직장생활로 인한 시간 부족과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고, 경험과 지식의 부족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가정에서 가부장적인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중시하고 있고, 아직까지 양성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이국희, 2014).

아버지는 중요한 양육자로서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존재이다(윤혜진, 허영림, 2014). 특히 영유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 중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으로 생애 초기의 발달과 돌봄이 중요한데, OECD(2001)에서는 이러한 영아기를 ‘Starting strong’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장효은, 김춘경, 2018에서 재인용). 아버지 양육 참여는 영아의 인지 발달(강기숙, 한유미, 2010)이나, 사회·정서 발달(강수경, 김민정, 정미라, 2015; 정미라, 김민정, 강수경, 2016) 및 의사소통발달(전홍주, 조수경, 김미정, 최항준, 201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가정에서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현주소이다(이윤진, 2016).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일수록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쉽지 않으며, 이상적 아버지상과 실제 아버지 역할 간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이나 어머니 역할의 이중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정우영, 김희영, 2018). 20-30대 젊은 아버지들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직장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한편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처음 수행하기 때문에 역할 수행의 이중 부담이 더욱 심각하다. 영유아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20-30대 아버지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버지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적인 제도가 활성화된 직장에서 근무하는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참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양육참여의 문제가 아버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직장 및 사회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이숙현, 권영인, 2009). 아버지 교육에 대한 연구(김수정, 2008; 김숙영, 2004; 김현정, 2011; 방한별, 2007; 유동미, 2003; 정희연, 2005)도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긍정적 부부관계를 형성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용이, 2007).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적응기’를 통해 자녀 돌봄에 대한 책임감과 자녀와의 유대감을 쌓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게 된다(황정혜,

2003). 영유아를 둔 20-30대 아버지들은 직장 생활에 적응하는 사회 초년기를 겪으면서 가정 내에서는 처음 아버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이중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아버지의 자녀 돌봄을 위한 기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20-30대 젊은 아버지들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직장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동시에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로서 역할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아버지는 부양, 어머니는 육아와 가사’라는 전통적인 담론과 ‘부양도 육아도 공동의 책임이다.’라는 새로운 역할 담론이 공존하고 있다. 아버지 역할에 대한 담론의 혼재는 아버지들이 자신의 역할 비중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혼란스럽게 만든다. 사회의 변화로 인해 젊은 세대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대가족과 생활하면서 자연스러운 사회화가 이루어졌다면 핵가족 형태의 현대사회에서는 부모가 가정의 중심이 됨으로써 자녀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진 것이다. 전통사회의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 생활에 대하여 비교적 예측이 가능하여 큰 혼란과 갈등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었지만, 현대사회의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 생활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있어서 필요한 준거를 갖기가 힘들어졌고 빠른 사회 변화로 인하여 한 세대의 지식과 관점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임선희, 2018). 즉, 젊은 세대의 기혼 남성들은 자신의 경험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 역할의 격차로 인해 자신의 성 역할에 대한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어머니보다 적지 않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본인의 행복과 자녀의 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자녀들이 지각하고 있는 아버지의 역할도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 자녀들은 가정 내에서 아버지를 아버지일뿐 아니라 선배이자 상담자, 친구이자 교사와 같이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새로운 아버지상을 그려간다(이지연, 2022). 자녀 양육은 이제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아버지와의 공동 육아로 당연시하는 추세이다(이배, 김경숙, 2013; 최화자, 이하원, 2019). 현대사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아버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Cabrera, Tamis LeMonda, Bradley, Hofferth, & Lamb, 2000).

기존 연구들은 현대사회의 아버지 역할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사회제도적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남성의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인식 연구(이국희, 2014; 장지연, 2014), 아버지의 육아휴직 경험 연구(고가연, 2015),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남성의 가정 및 직장에서의 경험 연구(윤영주, 2014)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하여 아버지의 자녀 돌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현대사회 아버지들의 자녀돌봄에 관한

인식 변화, 정체성 인식과 역할 변화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태도가 자녀와 배우자, 가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논의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양적 연구방법으로 이루어져 아버지들이 느끼는 양육의 경험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양적 연구는 수치화된 단편적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질적 연구는 인간의 행동이 일어나는 맥락과 행위자의 주관적 체험, 그 체험의 의미에 중점을 두으로써 변화과정에 대해 풍부한 자료와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연문희, 박남숙, 2001). 아버지로서의 주관적 체험과 변화과정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관한 질적 연구들은 아버지로서의 자녀 양육 경험에 집중되어 있었다. 황정해(2003)는 연구를 통해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의 경험과 의미를 파악하였고, 김혜선(2005)은 첫 자녀의 출산이 임박해서야 아버지의 역할을 고민하게 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위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세미(2007)는 젊은 아버지들은 직접 양육에 참여하기보다는 배우자를 지원하며 배우자의 사랑을 얻고자 양육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아버지들의 자녀양육 경험을 탐색한 질적 연구들은 자녀양육 과정을 통한 아버지의 경험이 자녀와 배우자,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탐색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연구들은 맞벌이, 육아휴직 등의 조건 하에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시대적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요즘 세대 젊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나 실질적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20-30대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아버지로서 자녀 돌봄의 역할에 관한 경험을 살펴보고 의미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통사회와 달리 현재 영유아를 둔 아버지의 역할변화가 어떠한지 고찰하고 아버지의 자녀 돌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올바른 가족 성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30대 아버지들의 자녀 돌봄에 관한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통사회와 달리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시대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20-30대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한 아버지 역할과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20-30대 아버지들의 자녀 돌봄에 관한 인식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20-30대 아버지들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20-30대 아버지들의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20-30대 아버지들의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기 전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 아버지 역할 내용의 변화 그리고 아버지의 긍정적인 자녀 돌봄을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 1.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

#### 1) 전통적 문화에 기반한 아버지의 자녀 돌봄

자녀 돌봄은 영유아의 보호와 도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 공동의 역할이라는 것이 성립되며, 부부가 이를 수용하고 역할에 대한 탐색과 구체적인 실행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진욱, 권진, 2015). 또한 자녀 돌봄은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응하는 역할이다(유해미, 2014). 규범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남성이 결혼 후 자녀를 두게 되면, 아버지라는 위치에서 사회적·문화적 기대 혹은 요구 사항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돌봄에 적응해야 함을 의미한다(이연승, 김현정, 최진령, 2017). 도구적 역할로서 아버지의 돌봄은 가정의 경제적 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전담해서 수행하는 것이고, 훈육자로서 역할과 자녀에게 장래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필요역량을 배양하는 역할을 한다(윤미화, 2016).

하지만 우리 한국 전통사회의 아버지는 규범적 차원의 자녀 돌봄은 배제되고 오로지 도구적 역할만 수행해왔다. 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는 엄부자모(嚴父慈母)라 하여 아버지는 가부장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엄격히 다루고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교전통의 윤리규범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부-자녀관계는 수직상하의 관계이자, 부자유친(父子有親)의 자애로운 아버지와 효를 다하는 자녀의 관계를 형성해 왔다(Yang, 2001; 박찬우, 2017에서 재인용). 이는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족의 수장으로서 권위를 지니고, 자녀 양육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위상에 적합한 행동을 통해서 가족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인식되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자녀의 성공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로 매니저 엄마,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전략적인 성별분업의 양육형태가 강화되어, 자녀양육에서 아버지들이 배제되는 현상도 있었다(김경근, 2016). 이는 한국의 남성들은 자녀양육을 남성 다움과 연결하지 않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경제부양자 역할은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나타난 현상임을 파악할 수 있다(나성은, 2014a; 조윤경, 2014). 즉, 어머니가 자녀 돌봄에 직접 개입하는 역할을 한다면 아버지는 경제적 지원과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녀 돌봄에 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가부장 중심의 가족체계 및 구조를 중심으로 아버지는 가족에 대해 절대적 권력을 지닌 존재였다. 가부장적 체계는 그것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들 또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사람들을 요구하며, 남자들은 지배하고 여성들은 의존하도록 사회화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공진수, 2006). 가부장적 전통사회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뚜렷하게 구분되었는데, 아버지는 생계부담자이고 어머니는 가사부담자로서 간주되어 자녀의 양육은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였다.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양육 및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를 보조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가족체계 내에서의 사회적 대표자, 가족의 대표자로서 모범적 행동과 가치관을 선보이는 도구적 역할을 하고 가정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내리며 아동의 장래를 위해 훈육을 담당하였다(이혜경, 2007). 또한, 자녀의 성장에 있어 사회적으로 능력있고 독립된 일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성 역할의 모델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통사회에서 아버지는 권위와 위엄의 상징이다. 아버지라는 지위 자체에 절대적 권위가 부여되어 누구도 함부로 범접하기 어려운 존재였다(서명석, 2009). 자녀의 훈육 과정에서도 일차적으로 어머니의 훈육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는 “아버지가 아시면 야단 맞는다”, “아버지께 고할테다” 등의 표현으로 최종의 단계에서는 아버지의 제재가 요구되었다(유안진, 1986). 이처럼 아버지의 훈육을 통해 자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규범을 익히고 준수하게 된다. 사회규범을 지키는 것은 개인의 욕구를 억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며 남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위엄과 엄격함을 필요로 한다(김광웅, 1999). 또한 아버지로부터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욕구좌절을 맛보게 되며 욕구좌절을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려 하지만 아버지에 의해 번번이 좌절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공격적 행동의 좌절감은 이후 아버지에 대한 존경감으로 내면화된다(이계학, 2000). 전통사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인격의 바른 틀을 마련해 주고 인격을 바르게 키워나가도록 양육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가정교육의 방법적 원리가 작동해왔다.

## 2) 현대사회 아버지의 자녀 돌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통적인 부부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아버지는 경제적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19세기 이후 심리학과 아동발달 분야가 발달하면서 아버지의 양육이 유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면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김경은, 김연아, 2017; 이원영, 이태영, 전우경, 강정원, 2017).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해 자녀 돌봄의 공백이 생기면서 자녀 돌봄과 같은 가정 내의 역할 부담이 성에 따라 행해졌던 패턴이 아닌 공동 돌봄으로 인식이 전환되었다(조윤경, 2014).



심지어 육아 계획에 대한 관점에서도 부부가 공동으로 임신, 출산과 미래의 자녀 양육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등 기존의 아버지가 돌봄에 있어 어머니의 보조자 역할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서진영, 2015). 시대적 변화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제 아버지 역할이란 아버지로서 경제활동을 통한 물질적 환경의 제공과 함께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돌봄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IMF사태로 인한 국가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는 일과 양육에 대한 성 역할 분업의식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다. 이로 인해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생계 부양자에만 국한된 과거와 달리 양육 참여자로 확대되었다(백진아, 2009; 손소영, 2013). 현대사회에서 자녀양육을 공동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의 '보조자'가 아닌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주정혜, 2012). 더 나아가 아버지가 아동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 양호, 교육, 놀이하는 역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김영숙, 2007). 하지만 한국의 아버지들은 아버지 역할의 재발견과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변화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미희, 2018).

OECD(2015)의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아빠와 아이의 교감 시간이 OECD 가입국 평균 시간은 47분인데, 대한민국은 단 6분에 머무르고 있다. 이 연구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 사회의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현재 국내에서도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아버지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아버지의 육아참여 활동을 독려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등 그 변화가 더욱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의 육아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를 보여주는 단면적인 예로 '아빠육아'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국내의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변화 양상으로 가정의 기능적 역할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가장 중심적인 변화는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역할에서 가사분담과 자녀양육을 아우르는 역할로 바뀐 것이다(서진영, 2015). 새로운 아버지, 즉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육아참여 활동에 일상적 경험으로서 잠재우기, 목욕시키기, 등·하교시키기 등과 학습지도, 인성지도, 자녀와의 소통, 공감, 상호작용 등의 교육적인 활동과 정서적 지지 등(Cabrera et al., 2000)과 육아에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매하고, 이유식을 만드는 등의 양육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또한 포함되기 시작했다(Andersen, 2015).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물질적, 심리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투자해야 함으로써 자녀의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자녀들은 아버지 역할을 통해 가치관과 책임감, 성 역할을 배우게 된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아버지의 육아 참여 활동은 자녀의 인지적·정서적·성 역할·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Brandth & Kvande, 2015). 아울러 적극적인 아버지의 육아 참여는 부부관계의 긍정적 개선과 더불어 가정의 행복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김산하, 2015). 심지어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했을 때 그 자녀는 교우관계와 규범준수, 정서적 지지에서 긍정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석지연, 2012).

이처럼 과거에는 어머니 주도로 자녀 돌봄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은 아버지의 자녀 돌봄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경제적 부양자일 뿐만 아니라 양육과정에서 자녀 돌봄에 대한 적극적 참여자로 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자녀 돌봄은 더 이상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에 분명한 기준점이 없으며,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자녀 돌봄에 참여하도록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양육을 잘하는 것은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 차이, 즉, 경험과 학습이 원인이기 때문이며, 현대의 아버지들은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양육을 아버지의 역할로 배우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적극적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직접적 양육 참여와 실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강현식, 2011).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며, 아버지는 윤리적 규범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존재이고, 어머니는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자상한 모습을 갖추어야 할 존재로 인식되었다(이국희, 2014). 하지만 현대 가족의 모습은 다소 권위주의적이었던 전통적 가족의 모습보다 더욱 개인적이며 유연한 가족의 모습으로 바뀌었다(윤영주, 2014). 이로 인하여 자녀 돌봄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적인 역할 범주가 무색할 정도로, 부부공동의 자녀양육이라는 관점이 대두되게 되었다. 무엇보다 자녀 돌봄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구별이 모호해졌고, 양성 평등적 입장에서의 부모 역할이 대두된 것이다. 즉, 현재의 자녀 돌봄은 부부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며, 부부 간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나성은, 2014a). 또한, 부부의 평등한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도 수평적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궁극적 원인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고도로 산업화가 된 배경과 핵가족화가 된 구조화된 가정 배경에 따른 낮은 출산율, 그리고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인구로의 편입 등을 보고하고 있다(도남희, 2013). 자녀 돌봄과 같은 가정 내의 역할 분담이 성에 따라 행해졌던 기존의 패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 돌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었다(조윤경, 2014). 심지어 육아 계획에 대한 관점에서도 부부 공동으로 임신, 출산과 미래의 자녀 양육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등 기존의 아버지가 자녀 돌봄에 관한 어머니의 보조자 역할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서진영, 2015). 아버지도 적극적 돌봄을 수행하여 아이에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자녀와 민감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육아 참여의 중요성은 남성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은 ‘아버지는 누구이고 아버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아버지 노릇(fathering)에 관한 관념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러한 아버지상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버지로서 자녀를 돌보는 경험을 해석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생계부양자로서의 아버지상 역시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어 아버지로서 자녀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자원을 제공할 때 비로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아버지들은 생계부양자이자 좋은 노동자 역할과 새로운 아버지상 간의 모순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Townsend, 2002).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시 자녀 돌봄에 대한 욕구가 내재되어 있으며, 아버지의 자녀 돌봄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녀 돌봄과 관련한 학습을 제공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기도 하였다(김산하, 2015).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녀 돌봄 효과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에서 자녀와 더욱 밀착된 아버지의 역할이 올바른 자녀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을 보고하기도 하였다(석지연, 2012; 이모아, 2010; 이옥순, 2011). 아울러 자녀 돌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아버지의 자녀인 경우 민감성과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힌 연구도 살펴볼 수 있다(김영희, 2004; 서진영, 2015; 이재성, 문영경, 최형임, 2012).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아버지의 자녀 돌봄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과거에 비해 현재 아버지의 자녀 돌봄은 어머니와 함께 부부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책무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부부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변화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아버지들의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처음 아버지가 된 시점에서 경험한 자녀 돌봄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과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떠했는지, 현재 아버지로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자 한다.

## 2. 아버지 역할 내용의 변화

### 1) 자녀의 양육 지원자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의 성적인 역할 학습, 성취동기와 인지학습 등의 영역에서 어머니의 역할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정금자, 박미라, 2013; Andersen, 2015). 이는 자녀 돌봄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어머니 못지않게 자녀에게 주요한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아버지의 자녀 돌봄은 과거의 가정의 경제 활동 역할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양성적인 아버지의 역할이 요구됨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주요한 원인은 맞벌이 가정에서 어머니의 경제활동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양성평등 역할의 당위성을 인지한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김진욱, 권진, 2015; 이국희, 2014). 현재의 부부는 서로 생계부양과 자녀양육에 관한 역할을 동등하게 수행해야 함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인 부모보다 더욱 유연하게 간주하고 있다(이정원, 유해미, 김문정, 2014).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본 기존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신체적 놀이와 자녀의 교육과 올바른 성장을 위한 의사결정, 그리고 무엇보다 오로지 자녀와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물리적 시간 확보 등을 보고하고 있다(장지연, 2014).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관한 역할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함께 목욕하기, 이유식 준비하기, 아기 재우기, 옷 입히기, 어린이집 등·하고, 신체적인 놀이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고가연, 2015). 이를 통해 과거에는 어머니의 역할로만 규정되었던 자녀 돌봄에 대해 아버지의 적극적 참여자로서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자녀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버지는 영아의 정서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하여 민감성이 발달하며, 이를 통하여 아버지는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정신적 안녕을 가진다고 밝힌 연구 결과도 살펴볼 수 있다(홍승아, 이인석, 2012).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자녀 돌봄에 자신감 향상과 일상 생활에서의 회복 탄력성이 증가한다(김민정, 2015). 무엇보다 아버지는 자녀 돌봄을 통하여 양성 평등의 마음가짐이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이러한 양성 평등의 가치관은 자녀에게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진욱, 권진, 2015; 정한나, 2012). 이처럼 자녀 돌봄에 대한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는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더불어 부부의 관계 역시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김은설, 2012). 즉, 부부의 평등한 관계 아래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자녀 돌봄에 참여할 때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및 본인의 정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 돌봄은 근원적으로 미미한 차이가 나며, 유아는 부모의 역할수행에 따라 상이한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처음 부모로의 전환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성숙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김진옥, 고은주, 2014). 부부의 건강에 더욱더 몰입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경제적인 면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가족 지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과정이 된다(유해미, 2014). 아버지의 자녀 돌봄의 중요성을 파악한 연구에서, 아버지는 첫 부모로의 전환 후 만족감, 긴장감과 자녀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아버지는 부모가 된 것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 때 자녀 돌봄에의 적극적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영옥, 김택면, 강민정, 임희정, 나성은, 2014).

한편, 아버지들의 양육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아버지 역할에 대한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아버지들의 양육행동에는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 실천 상의 문제에서 아버지들은 바람직한 아버지상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인 역할수행의 불일치, 생계부양자와 돌봄 제공자 역할 수행의 긴장감, 자녀에 대한 헌신과 직업적 성취욕구 간의 갈등, 가족과의 의사소통에서의 소외됨 등 아버지로서의 역할수행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실제적인 양육수행은 인식의 변화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가연, 2015). 아버지들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중요성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으로 전환하였으나 여전히 그 역할에 필요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고 직장 문화나 분위기로 인해 양육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역할 수행에 대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아울러 적극적인 자녀 돌봄을 통하여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켜 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적극적인 아버지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아버지에게 자녀 양육은 부부 공동의 역할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의 자녀 돌봄이 저조한 편이다(박종서 외, 2018; 서석원, 이대균, 2014). 이러한 현실의 근본적 원인은 아버지의 양성평등 인식과 이에 관한 역할 습득이 부족한 것이라 보고하고 있다(이연승, 김현정, 최진령, 2018). 전통적으로 유교문화에 토대를 둔 문화에서 성장해온 아버지의 모습은 자신의 자녀 돌봄 단계에서 사회적 상황 변화에 불안정한 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배호중, 2015). 아울러 현재의 아버지는 자녀 돌봄의 적극적 참여자로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지만, 자녀 돌봄 참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과 이에 관한 지식 부족으로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아버지 역할을 수월하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고가연, 2015). 그리고 여전히 자녀 돌봄 행위는 어머니의 역할로만 생각하면서 이에 무관심한 아버지들도 많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다(이연승 외, 2018).

일부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기저귀를 바꾸는 방법과 수유 방법, 아기가 울 때 어떤

언어적 표현인지 등의 정보를 가지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김진옥, 고은주, 2014). 이러한 아버지의 행위는 자녀 돌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자녀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욕구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음 부모로의 전환은 남성들에게 자녀 돌봄에 관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자녀 돌봄 경험이 미약하여 지지적인 피드백의 환경이 중요함을 보고하고 있다(윤미화, 2016).

또한, 아버지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성적 태도에 따른 자녀 양육참여 행위에 차이가 있고, 남성 육아휴직 관련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아버지의 근로시간은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안수미, 2013), 남성 육아휴직자 대부분이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생산직보다는 사무직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5). 이는 아버지의 육아는 개인적 특성, 가족의 상황,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아버지의 개인적 배경 변인에 따른 참여 현황 및 장애 요인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위한 적절한 지원 대책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아버지는 자녀 양육 지원자로서 놀이, 유대, 발달 및 교육 관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경험을 수행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아버지는 자녀와의 신체적 놀이와 자녀의 교육과 올바른 성장을 위한 의사결정, 자녀와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노력 등 적극적인 자녀 돌봄 경험을 형성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서 어려움 역시 살펴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30대 아버지들의 경험과 의미 탐색에 있어서 처음 아버지가 된 시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어떠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내고자 한다.

## 2) 아내의 동반자

한국의 가부장적 성 역할 태도는 성(gender)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전통적 태도를 의미하며, 이는 한국의 유교적 전통과 일맥상통하여 가정 내 부부관계의 가치관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과 그에 따른 역할기대가 명확하게 정의되었고,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여겨졌다(김재엽, 김희진, 최장원, 2010). 이러한 가족체계의 가치관은 현대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아버지는 가정의 생계부양자이자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을 차지하고, 어머니는 가사활동에 전담하며 자녀의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핵가족화와 함께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게 되었다.

어머니는 직장과 가사 일을 병행하며 이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반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전혀 감소하지 않는 것을 밝힌 연구 결과가 상당히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 출생으로 인한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 역할부담 가중, 그리

고 육아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크고 작은 심리적 고통이 축적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조재숙, 박재학, 2017). 어머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 즉, 엄마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영아를 돌보는 일은 낯설고 매 순간 적응이 필요하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자녀의 모든 행동에 부모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할 영아기에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가장 저조하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장효은, 김춘경, 2018).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인 토대 속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하여 가족 내에서 역할의 제약을 받으며 생활하였다(유해미, 2014). 여성의 기본적인 책무성은 가정에 몰입하는 것이라는 문화가 팽배한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여성들의 혼인은 자녀의 출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치부되었고, 자녀 출산은 자연스레 자녀 양육의 소임을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측면은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가족의 결속과 화목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지하였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미지를 가졌다(유해미, 김문정, 2013).

실제로, 여성은 남성을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많은 경험을 공유하는 일에는 부족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과거 세대의 여성들은 비교적 많은 수의 자녀를 낳고 길러내는 데 큰 의미를 두었지만, 현대 여성들은 자녀 교육과 자신의 사회화 속에서 갈등과 피로를 느끼고 있다(이모아, 2010). 여기서 과거의 여성과 현대의 여성은 학력 수준, 경제활동,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가치관 등에 시대적 차이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부로서의 가족 내의 가치관 문제 때문에 자녀 돌봄에 있어 성 역할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정금자, 박미라, 2013).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부부 공통의 목적인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정당화되는 측면이 있다. 즉, 부부 모두 가정 생계나 가족 관리의 원활함을 위해서 서로의 뜻을 공유하는 것은 부부 공동의 적극적 돌봄 등 안정적인 긴밀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서로의 노력으로서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김진욱, 고은주, 2014).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자녀 돌봄의 참여는 자녀에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배우자인 어머니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양육하는 태도가 긍정적이며 아버지 자신이 아버지 역할에 대해 더 만족할수록 어머니의 수용적이고 더 자율적인 자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쳤다(장재홍, 김태성, 2002). 또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준다(손영빈, 윤기영, 2011). 아버지의 역할은 아버지 자신에게도 영향을 주는데,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 경우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다(이희선, 이윤나, 2014; 조해연, 유준호, 2021). 즉,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참여와 태도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본인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이론에서 아버지의 육아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아버지”상이 부상하게 되었다. 새로운 아버지는 이전의 아버지와 달리 자녀에게 감정을 표현하고, 비권위적이며, 자녀의 육아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부모노릇(parenting)을 동등하게 하도록 기대받는다(Dermott, 2008; McGill, 2014). 하지만 여전히 자녀 돌봄의 적극적인 참여자는 어머니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현실에서도 여전히 어머니가 자녀 돌봄을 일임하고 있는 양상인 것은 분명한 실정이다(이국희, 2014). 대다수의 아버지들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생활에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로서 전통적 역할인 경제활동 외에도 가정에서 자녀 돌봄과 가사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자녀 돌봄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에서 연령이 적은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연령이 많은 아버지보다 자녀 돌봄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전환하는 과정을 보이고 실행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장지연, 2014).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 변화과정의 관점에서 이에 생소한 아버지는 자신이 경험했던 자녀 돌봄을 모방하면서 학습을 했고, 개개인의 아동기 시절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역할모델을 답습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박종서, 변수정, 조성호, 이재량, 박건, 2018). 따라서 아버지가 경험한 과거의 경험과 정서, 기대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고 싶은 행동 양식 등이 부부 모두가 자녀 돌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아버지의 긍정적인 자녀 돌봄을 위한 노력

#### 1) 개인 스스로의 노력

아버지의 긍정적인 자녀 돌봄에 관한 연구 중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9.9%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아버지들이 자녀 육아에 관심이 있으며, 아버지들이 육아 참여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이연승 외, 2017). 아버지가 육아를 담당할 아이는 자아 존중감, 사회성, 학습능력이 높다는 연구도 있어 아버지 육아의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민정, 2015). 그리고 적극적인 아버지의 육아 참여 활동은 자녀의 인지적·정서적·성 역할·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Brandth & Kvande, 2015). 더욱이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육아 활동에 참여한 경우 그 자녀의 교우관계와 규범준수, 정서적 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 결과도 있다(석지연, 2012).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적극적 참여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의 자녀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과 응집성을 높여준다.

아버지의 자녀 돌봄 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가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아버지의 자녀 돌봄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향, 정서적인 안정성, 신체적 건강, 가정 행복에 관한 지지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친다(김낙홍, 2011).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 돌봄은 환경적 요인으로는 연령, 월평균 수입, 교육수준, 직업 등에 영향을 받는다(김은설, 2012). 아울러 가정적 요인으로는 배우자의 직업 유무, 교육 수준, 가족 구성과 형태, 자녀 수,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대한 배우자의 기대 정도와 인식 정도 등이 영향을 미친다(김영옥 외, 2014).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 돌봄의 심리적 요인은 성 역할 특성에 대한 수용 정도, 인성, 자아 존중감, 기존 부모에게 받은 양육성에 대한 인식과 지각,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 부부 간의 의견 일치도 등이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다(정한나, 2012). 즉, 아버지가 지닌 개인적 요인이나 사회적, 환경적 여건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참여 정도와 태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 중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참여 정도와 아버지의 연령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미 안정적인 직장생활에 적응한, 연령이 많은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연령이 적은 아버지보다 자녀 돌봄에 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황정해, 이정덕, 2000). 그리고 전문직이 전일 근로자보다 자녀 돌봄에 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보고되었다(고용노동부, 2012). 하지만 여전히 자녀 돌봄의 적극적인 참여자는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현실에서도 여전히 어머니가

자녀 돌봄에 일임되고 있는 양상임에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국희, 2014). 한편, 자녀 돌봄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에서 연령이 적은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많은 아버지보다 자녀 돌봄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전환하는 과정을 보이고 실행하는 모습을 갖춘 것으로 밝혀졌다(장지연, 2014). 이러한 상이한 연구 결과를 통해 아버지의 나이, 직업 유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향 요인들이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참여 정도에 영향을 미침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아버지의 자녀 돌봄 참여에 관한 역할 인식이 높을수록, 부부간의 관계 형성 정도가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버지 집단일수록 자녀 돌봄에 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연승 외, 2017).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들은 양육에 관한 역할 인식과 신념을 갖게 되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누렸던 것들을 자녀 돌봄과 같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박종서 외, 2018). 이는 아버지들이 자녀 돌봄을 통해 얻게 되는 일상의 행복감과 즐거움이 가족과의 교감과 소통에서 비롯됨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윤영주, 2014). 이러한 아버지들의 개인적 노력은 자녀 돌봄의 적극적인 참여로 귀결되며, 점차 자녀와의 상호작용과 적극적 놀이 참여자로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는다(이종순, 김규수, 2008).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 부부관계의 형성, 직업 만족도, 사회성, 자아 존중감 등 개인적 변인들이 자녀 돌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예비 아버지로서 개인적 노력은 새로운 아버지 역할을 더욱 안정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권미경, 최은영, 김나영, 김혜진, 임준범, 2016). 이러한 행위는 전통 사회의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에 몰입한 아버지의 역할과는 상반된 현재 아버지의 개인적 노력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아버지의 개인적 노력은 적극적으로 자녀 돌봄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통사회 아버지의 모습에 공감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형태의 아버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함을 보이고 있다(서진영, 2015). 젊은 아버지들은 전통사회에서의 아버지 역할을 넘어서 자녀 돌봄에 적극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자녀 돌봄에 개인적 노력을 다하는 아버지들은 아버지로서의 경험과 역할에 대한 신념이 높아지고, 외부적 관심이 줄어들며, 이로 인해 더욱 적극적인 자녀 돌봄자로 귀결되는 선순환 관계를 보임을 밝히고 있다(정한나, 2012). 이는 개인적 노력을 다하는 아버지들이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지며, 삶에 대한 성찰과 함께 성숙한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 돌봄이 아버지들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다. 신용주(2012)는 아버지가 되는 것은 남성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자아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였다. 즉, 자녀를 양육

하면서 아버지는 일반적인 남성이 지녀 온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가치관과 태도 등 내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전환학습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개인적 노력을 다하는 아버지들은 자녀와 친밀하게 보살핌을 다하고, 자녀를 교육하면서 느끼는 기쁨을 가지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갖게 된다(신용주, 2012).

이와 같이, 자녀 돌봄에 개인적 노력을 다하는 아버지는 과거 남성 중심적 가치관 속에서 경제적인 책임과 보호자의 역할에만 몰입했던 전통사회의 아버지 역할을 답습하지 않고, 보다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자 적극적인 자녀 돌봄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즉 자녀 돌봄에 개인적 노력을 다하는 아버지는 자녀 돌봄을 통해 삶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립되고, 가정을 통한 성공적인 삶의 행복을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자녀 돌봄을 통해 더욱더 가치적인 삶을 추구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 2) 사회적 지원

초기 아버지로의 전환 시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는 아내의 임신과 출산 과정을 경험하면서 신체적·정신적 및 인지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특히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을 겪으며 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Gray & Anderson, 2011). 아버지 되기의 과정에서 겪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들은 사회정보망에서의 정보 획득과 사회적 지지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에 지혜로운 적응을 하게 된다고 밝혀졌다(김영옥 외, 2014). 이를 구체적으로 연구한 이연승 외(2017)의 연구에서도 313명의 부부들이 출산 초기에 부모역할 실행에 대한 만족감은 심리적 반응에 영향을 받으며, 심리와 정서는 사회관계망의 활용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지지에 많은 도움을 받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사회의 문화적 측면에서 사회관계망을 활용하여 비슷한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을 토대로 부부의 공동 자녀 돌봄은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정원 외, 2014). 유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돌봄 행동에서 또 다른 기대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유아의 다양한 성장발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파악할 수 있다.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가정의 공동 육아에 대한 정서적 공유와 의사소통의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버지의 육아 참여에 대한 중요성은 남성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성 육아 지원제도는 육아휴직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가족 돌봄 휴직제도 등이 있다. 이 중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와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나성은,

2014b). 한편, 아버지의 육아 참여의 어려움을 밝힌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관한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는 공감하고 부부공동으로 가정 내 분업을 통해 적극적인 자녀 돌봄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해 사회·문화적 소외감에 따른 심리적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김연진, 2013).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 돌봄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적극적인 자녀 돌봄은 가정의 정서적 교류에서 상당한 행복감을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자녀 돌봄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김민정, 2015).

특히, 영유아를 둔 아버지는 자녀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며, 적극적 자녀 돌봄 참여자로서 아버지 역할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 인식변화가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자녀 돌봄 행동에 많은 부분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즉 실천적 자녀 돌봄에서 아버지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육아에서 아버지로서의 모습에 대한 인식과 현실적인 자녀 돌봄 역할수행에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가정 생계의 부양자로서의 역할과 자녀 돌봄 역할 간의 괴리감, 직업적 성취 욕구와 자녀에 대한 헌신 간의 갈등, 나아가 이러한 갈등 속에서 가족과의 소통 부재에서 나타나는 소외감 등으로 인해 공동의 육아 참여자로서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가연, 2015).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자녀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아버지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는 역할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노력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제도가 필요하다(유해미, 2014). 이를 위해 육아 지원제도 의무화와 이의 이행실태에 관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경제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이정원 외, 2014). 박종서 외(2018)의 연구에서 아버지들은 지원제도를 사용하고 싶지만 직장 상사와 동료의 눈치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함을 밝힌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은 활용을 보인 육아제도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3일 정도가 가장 많았음을 보고하고 있다(박종서 외, 2018).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아버지들의 원활한 육아지원제도 활용에 있어서, 적극적인 아버지 육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살펴볼 수 있다.

요컨대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아버지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중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노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30대 아버지들의 경험과 의미 탐색에 있어서 처음 아버지가 된 시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살펴보고 아버지로서 적극적으로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방법의 선정

질적 연구는 인간의 경험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이들의 인식이나 행동의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방법이다.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양적 연구와 달리 그 어떤 것도 가정하지 않고 이해된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다(Creswell, 2007).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는 인위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실제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 자료수집의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관찰이나 심층면담을 통해 도움이 되는 자료는 모두 수집하며 결과보다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질적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들의 경험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 의미를 탐색할 수 있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관점으로부터 의미를 추출하여 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이종승, 2008).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같이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 속에 다양한 생각과 경험하는 인간의 삶에 대해 개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의미를 분석하고 형성해 나가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조성남, 이현주, 주영주, 김나영, 2011).

이러한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달리 연구자가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삶을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질문과 일상적 언어로 만들어진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와 상호작용하며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이때 참여자들과 rapport를 형성한다면 참여자들의 경험, 생각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표현되는 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순간의 감정, 제스처들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 공감과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진술의 의미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수집한 정보들은 현장노트에 일차적으로 기록하며 추가적으로 메모, 연구자의 평을 일기의 형태로 기록한다.

이와 관련하여 Creswell(2007)은 연구문제의 특성, 탐색이 필요한 주제, 구체적인 시각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연구, 연구참여자들이 처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대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질적 접근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아버지들의 자녀 돌봄에 대한 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므로, 연구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경험에 접근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상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자 상황 설명적 차원의 자료 분석방법인 질적 주제분석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주

제분석은 공통의 의미나 공유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일련의 경험, 생각 또는 행동을 이해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강력한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Braun & Clarke, 2012). 그리고 인생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기술과 해석, 맥락강조, 표면적이고 잠재적인 내용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개인 경험에 대한 본질을 바라보는 데 목적이 있다(이명선 외, 2018). 그러므로 질적 연구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면담을 통하여 의미 파악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김영천,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20-30대 아버지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라포를 형성하고 이들이 겪은 자녀 돌봄 경험에 관한 진술을 이끌어내서 그 의미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 시대의 젊은 아버지로서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을 함께 영위하면서 겪은 자녀 돌봄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자녀 돌봄의 실제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이들의 자녀 돌봄 인식과 경험, 그 의미 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 2. 연구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는 연구주제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가진 연구참여자의 소개를 통해 점차 다른 대상자를 늘려가며 조사하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은 무작위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방법에 비해 연구참여자의 소개를 통해 주제에 근접하고 신뢰할 만한 다른 연구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20-30대 아버지로서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며 서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경험에 대한 진술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20-30대 아버지가 인식하는 오늘날의 아버지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자의 거주지인 울산에 거주 중이며 영유아 자녀를 둔 20-30대 아버지를 대상으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소개를 받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첫 자녀를 둔 20-30대 남성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개별적으로 연계된 참여자에게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고 스스로 연구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14명을 최종적으로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참여자들에게는 구체적인 면담 방법을 설명하였고, 면담내용에 관해서는 주변 사람에게 철저히 비밀 보장이 이루어짐을 약속하고 연구참여자로써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배경 정보는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배경 정보

사례번호	나이	직업 (전직)	맞벌이 여부	학력	일 평균 근무시간	자녀수	자녀 연령
참여자 1	만 28세	자영업	○	대졸	9시간	1명	만 0세
참여자 2	만 37세	회사원	○	대졸	9시간	2명	만 6세 만 1세
참여자 3	만 35세	교사	○	석사 졸업	8시간	2명	만 8세 만 4세
참여자 4	만 34세	사무직	○	대졸	8시간	1명	만 4세
참여자 5	만 34세	사무직	X	석사 졸업	9시간	2명	만 7세 만 2세
참여자 6	만 30세	현장직	○	고졸	주)9시간 야)15시간	1명	만 1세
참여자 7	만 27세	소방관	X	고졸	주)9시간 야)15시간	1명	만 1세
참여자 8	만 32세	영업직	○	대졸	9시간	1명	만 3세
참여자 9	만 31세	자영업	X	대졸	14시간	1명	만 2세
참여자 10	만 30세	자영업	○	고졸	14시간	1명	만 3세
참여자 11	만 30세	사무직	X	전문 대졸	8시간	1명	만 3세
참여자 12	만 38세	현장직	○	대졸	8시간	2명	만 9세 만 5세
참여자 13	만 36세	사무직	○	대졸	9시간	1명	만 3세
참여자 14	만 36세	사무직	○	대졸	8시간	2명	만 12세 만 5세

### 3. 자료 수집

#### 1)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하여 기존 사회변화에 의한 아버지의 역할 변화 및 자녀 돌봄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 및 보고서, 출판물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문헌 고찰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심층 면담으로 도출한 아버지들의 자녀 돌봄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들의 경험이 지닌 의미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참고한 문헌들은 국내외 선행연구 및 학술지 논문들이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정 내 아버지의 역할 변화를 이해하고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파악하고자 각종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및 보고서, 통계조사 등의 문헌 자료도 병행 분석하였다.

#### 2)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아버지의 경험 속에서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과 아버지 역할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심층면담은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 14명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은 선행연구를 통해 면담 범위와 내용이 선별되었고, 연구 주제와 관련된 질문으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면담 질문은 크게 3가지 주제와 관련된 개방적인,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표 2> 참고).

면담은 기본적으로 개인별 1-2회, 90분에서 120분가량 실시되었다. 연구참여자와 대면하기 하루 전 10분가량 일상적인 이야기와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참여자가 연구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면담이 시작되기 전 5분가량 연구목적 및 취지에 대하여 상기시켜주었다. 원활한 면담 진행을 위해 연구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커피숍이나 연구참여자가 근무하는 직장, 참여자의 집 등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면담 후 분석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전화 면담을 실시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표 2> 주제에 따른 심층면담 질문

주제	질문
연구참여자의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아버지의 하루 일과는 어떠한가요?
	아버지에게 자녀 돌봄은 어떤 의미인가요?
	육아 참여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나요?
	어린시절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녀 돌봄에 있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연구참여자의 아버지 역할 경험은 어떠한가?	아버지의 가사 참여 경험은 어떠한가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 되고 싶으신가요?
	자녀와의 놀이 경험은 어떠한가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방안은 어떠한가?	아버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나요?

### 3) 자료의 보관 및 기록

본 연구의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누락 및 훼손을 방지하고자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 면담내용이 기록되었다. 심층 면담에서 녹음으로 인한 참여자의 언행 제한을 방지하고자 녹음기는 테이블 및 또는 화분 뒤와 같이 연구참여자의 시선에서 최대한 먼 곳에 배치되었다. 또한, 연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심층 면담에서 나타난 참여자의 표정이나 행동 등에 대한 기록을 현장 노트에 남겨두었다.

<표 3> 자료의 보관 및 기록

면담	횟수	총시간	일시	비고
연구참여자 1	1회	90분	2021. 12. 28	
연구참여자 2	1회	90분	2021. 12. 29	
연구참여자 3	1회	100분	2021. 12. 30	
연구참여자 4	2회	90분 20분	2022. 1. 8 2022. 1. 10	추가 면담
연구참여자 5	1회	90분	2022. 1. 9	
연구참여자 6	1회	110분	2022. 1. 11	
연구참여자 7	1회	110분	2022. 1. 11	
연구참여자 8	1회	120분	2022. 1. 16	
연구참여자 9	1회	110분	2022. 01. 17	
연구참여자 10	2회	90분 30분	2022. 01. 17 2022. 01. 20	추가 면담
연구참여자 11	2회	90분 20분	2022. 01. 18 2022. 01. 21	추가 면담
연구참여자 12	2회	90분 30분	2022. 01. 18 2022. 01. 22	추가 면담
연구참여자 13	2회	90분 30분	2022. 01. 19 2022. 01. 22	추가 면담
연구참여자 14	2회	90분 40분	2022. 01. 20 2022. 01. 23	추가 면담

##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주요 관심 현상에 대하여 공통된 주제에 관한 의미를 밝히는 데 유용한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 분석 6단계의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심층면담 자료를 전사하는 작업을 시행한 뒤, 주요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했다. 전사 작업은 연구자가 자료의 내용을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 본인이 직접 실시하였다.

<표 4> 본 연구의 주제 분석 과정

단계	과정	내용
1	데이터 기록 및 정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실시(녹음 및 필사 병행)</li> <li>전사 및 정독</li> </ul>
2	초기 코드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점과 인식에 대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코딩</li> </ul>
3	주제 탐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 코딩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코드를 정리 및 정의</li> </ul>
4	주제 검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형화 및 그룹화를 통한 주제 생성</li> </ul>
5	주제 정의 및 명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미 재확인, 주제 정의</li> </ul>
6	분석 기록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석 및 정의</li> </ul>

## 5. 자료의 진실성 검증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활동 자료의 진실성에 따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Lincoln & Guba(1985)의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 동료 간 협의(peerdebriefing)의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적 가치, 중립성 및 적용성과 일관성의 관점이 유지되었으며, 연구 방법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 6.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 문제는 연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신경립,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기 전 연구 참여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확인하고 서명을 받았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고 연구윤리준수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수행 및 심층면담의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에게 대한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윤리적 규약을 다음과 같이 준수하였다.

첫째, 연구자의 소속,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심층면담의 녹취 등에 관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심층면담의 진행 장소와 시간을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심층면담의 결과물로서 녹음자료 및 문서자료를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개인적 신분 보장을 위한 익명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에 대한 참여는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음을 약속하였다. 셋째, 연구를 수행하면서 발생 가능한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고 안내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20-30대 아버지들의 자녀 돌봄에 관한 인식 변화

본 연구에서는 주제 분석 방법을 통해 20-30대 아버지들의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표 5>와 같이 2개의 중심주제와 4개의 하부주제, 12개의 항목이 도출되었다.

<표 5> 20-30대 아버지들의 자녀 돌봄에 관한 인식

중심주제	하부주제	항목
암묵적 돌봄 방관자	생계 부양 중심	- 밖에서 일하는 아버지 - 육아에 참여하지 않음
	가부장적 아버지	- 함께 놀아주지 않음 - 가부장적 태도 - 엄격한 훈육
적극적 돌봄 참여자	관계를 위한 첫 단추	- 시대적 변화를 인지 - 가사와 육아의 평등한 분담 - 수평적이고 동등한 부부 역할 - 적극적 돌봄 참여자 되기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	- 경제적 책임이 더 중요 -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 자녀 돌봄에 관한 정보 부족

## 1) 암묵적 돌봄 방관자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아버지에 관한 기억에서 생계 부양을 책임지던 가부장적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었다. 이들은 자녀 돌봄에 참여하지 않고 가정의 경제를 위해 밖에서 일하는 아버지, 함께 놀아주지 않고 육아 참여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가부장적 태도로 자녀를 대하고 엄격하게 훈육하는 아버지의 모습 등을 회상하였다. 육아는 어머니가 전담하는 것이고,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가정을 위한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 (1) 생계 부양 중심

전통사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경제적 활동에 매진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지위를 확보하여 가정에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과거의 아버지들은 자녀 돌봄을 위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았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으며, 가정에 안정적 경제 자원을 제공하고 대외적 권력을 행사하는 보호자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아버지는 자녀의 역할 모델과 더불어 의사결정자이며, 자녀에게 사회적 가치관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안진민, 2012). 또한, 자녀 돌봄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으며 아버지는 이를 일시적으로 보완하거나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중요한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과거의 아버지 역할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고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며, 어머니는 가사와 육아의 책임자로 가족의 안녕과 보호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송나래, 2018). 우리나라의 전통적 아버지는 정신적 지주로서 자녀 돌봄에 주도적 결정자로 역할을 맡았고 어머니는 정서적이고 양육적 측면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처럼 아버지가 자녀 돌봄에 주변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권위와 위엄을 중시하던 가부장적 문화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남녀의 성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던 전통사회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기존의 대가족이 핵가족화되면서 가부장적 권위는 사라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로 자녀 돌봄을 전담하지 못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자녀 돌봄 역할의 비중이 높아졌다. 현대사회의 핵가족화는 부모의 자녀 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시켰고 아버지의 적극적인 자녀 양육이 요구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으로써 부부의 역할은 평등하고 수평적으로 바뀌었으며, 아버지의 자녀 양육도 당연시되는 분위기로 자리 잡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회상하면서 아버지의 역할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며 어머니는 자녀 돌봄을 전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부장적이며 아이들에게는 권위적인 모습이 곧 아버지의 역할이자 정체성이며 이 모습이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참여자 10)

과거에는 지금처럼 맞벌이 가정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로 아버지는 나가서 일을 하시고 돈을 벌어 오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부모님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참여자 3)

나의 아버지는 경제적인 수익만을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면 되고, 아이의 교육은 어머니가 하는 것이죠.

(참여자 4)

제 아버지는 "내 새끼들은 내가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마인드로 항상 돈을 벌어오시는 역할을 하셨고, 엄마는 가사 일과 육아를 하셨어요.

(참여자 9)

참여자 10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생계 책임을 우선적으로 언급하였고 그 외에도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 참여자 3은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참여자 4는 자신의 아버지는 경제적 역할만을 담당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참여자 9는 아버지는 경제적 역할에 전념하였고 엄마는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다고 말한다. 이처럼 20-30대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경제활동을 전담하였으며 육아는 어머니의 역할이었다고 회상한다.

## (2) 가부장적 아버지

전통사회의 아버지는 가부장적이며 권위적이고 자녀 돌봄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시대적으로 이와 같은 아버지상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였다. 아버지가 생계를 책임지며 대외적으로 가정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전통사회의 아버지상에 대해 시대적 분위기로 인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를 인지하고 있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자녀 돌봄에 몰

입하는 모습을 보인 아버지는 능력 없는 남자로 인식되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아버지의 자녀 돌봄을 폄하하는 사회적 배경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아버지가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 아기를 돌보는 아빠들은 능력 없는 남자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시선들과 더불어 옛날에는 남자가 돈을 버는 것이 당연했기에 아이를 돌보는 일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7)

과거에는 남자가 아이를 안거나 업고 다니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했기 때문에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육아 참여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참여자 7은 아버지의 자녀 돌봄이 부끄러운 일로 치부되었던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고, 참여자 2는 남성의 체면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자녀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전통사회의 아버지상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이 성장했던 사회적 배경이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부정적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생계 부양을 책임지고 자녀 돌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당연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자녀 돌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로서 생계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버지의 자녀 돌봄이 시대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이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아버지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실 육아에 적응이 잘 안되죠.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데 말이죠. 남녀의 관계가 수직에서 수평으로 변했다는 것은 인정해요. 제 합리화일 수도 있겠지만, 책임은 나눠 가져야 하겠죠.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구분이 없어졌다고 해도 남자가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7)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 곧 육아죠. 아이에게 세세한 케어를 해주는 일은 어머니가 더 잘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3)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저의 일반적인 인식은 영유아 자녀 돌봄에 대해 적극적인 책임이 없고, 경제활동에 열심히 하는 것이 육아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1)

참여자 7은 시대가 변해 남녀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남성도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남성이 생계 책임에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참여자 13도 남성의 경제활동이 육아에 해당한다며 실질적으로 자녀 돌봄은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고 진술하였으며, 참여자 1도 자신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남성이 경제적 책임을 전담하는 것이 육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일부 연구참여자들이 아버지로서 자녀 돌봄보다는 가정의 경제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가부장적 성장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접한 아버지의 역할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어린 시절 자신이 경험한 아버지는 대외적 경제활동에 전념하였고 자녀 돌봄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시대가 변하고 아버지의 역할이 바뀌어도 아직까지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신의 삶에 투영된 것이다. 시대의 변화로 인해 자녀 돌봄을 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아버지로서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생계를 책임지느라 힘들게 일만 하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녀 돌봄에 참여하지 못했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시대적 상황과 현실적 생활의 측면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공감하고 있었다.

아빠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면 엄청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들어오는 느낌이죠. 그래서 아빠에 대한 기억이 있기는 한데 막 설명하라고 하면 못할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는 바쁜 사람이셨어요. 이게 아버지가 안좋은 사람이다라고는 말하지 못해요.

(참여자 4)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시는 게 다였죠. 그것 말고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상하지 않았잖아요. 아마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버지가 벌어들인 돈으로 생활하던 게 당연했어요.

(참여자 6)

참여자 4는 아버지가 항상 일만 하느라 바쁜 사람이었고 자신을 돌봐주지 못했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로서 힘들고 어렵게 일한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 또한, 참여자 6도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전담해서 생계를 책임진 것을 당연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자녀 돌봄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잘못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항상 일만 하느라 바쁜 사람이었고 자신을 돌봐주지 못했다고 회상하면서도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로서 힘들고 어렵게 일한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돌봐주었던 기억에 대해 아버지가 주로 보호자의 역할을 하거나 엄격하게 자신을 훈육했던 모습이었다고 설명하였다. 가부장적 아버지로서 평소에는 주로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가끔 자녀를 돌봐주었는데 주로 곁에서 방관하는 태도이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격하게 훈계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아버지랑 놀러가거나 하면 인라인 스케이트 타기도 하고 이러는데 멀리서 지켜보  
고만 계세요. 그게 아버지는 놀아주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여자 11)

아빠랑 놀러가면 아들이라 그런지 표현이 힘드셨던 거 같아요. 그래도 놀아주시  
긴 하셨는데 막 특별히 기억은 안나요. 그냥 날 지켜주는 느낌이 강했어요.

(참여자 5)

엄청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일단 예절에서 벗어나다 싶으면 일단 몽둥이였어요.  
그때 진짜 아프고 그랬는데 그리고 아빠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항상 위로해줬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과하긴 했는데 시간 지나보면 밖에서 창피  
하지 않게 하려고 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덕분에 잘 자란 거 같기  
도 해요.

(참여자 13)

밥 먹으러 갔다가 식당에서 엄청 뛰어다니는 적이 있어요. 그때 아빠가 확 낙아체  
서 놀란 경험이 있어요. 무서웠던 느낌 그런데 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어려서 몰  
랐던 거지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학생 때도 잘못되길 원하지 않으셨던 거 같아  
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말도 좀 걸고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참여자 8)

참여자 11은 자신이 놀 때 아버지는 곁에서 지켜볼 뿐 함께 놀아주지 않았다고 기  
억하고 있고, 참여자 5도 아버지가 함께 놀아 준 기억은 없고 주로 곁에서 보호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가부장적 아버지는 평소 경제 생활에 몰두하고 시간이 나서 양육에 참여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놀이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곁에서 아이가 노는 것을 지켜보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녀를 돌보는 의미가 함께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참여자 13은 아버지의 엄격한 훈육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주로 체벌을 통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바로 잡았고 어머니는 아픈 자신을 위로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또한, 아버지의 엄격한 훈육 덕분에 자신이 잘 자란 것 같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 8의 경우도 아버지가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자신을 훈육한 상황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올바르게 키우려는 아버지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가부장적 아버지의 역할을 이해하고 엄격한 훈육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스스로 아버지가 되어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이 되어 아버지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가족(family of origin)은 인간이 출생하면서 성장해가는 동안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소속감을 갖는 가족으로, 결혼한 자녀의 경우에는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이전까지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소속감을 가져 온 가족을 말한다(김경자, 2003). 원가족에서 형성한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성인이 된 후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중요하게 작용한다. 자신의 어린 시절 가정에서 경험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판단을 내리고 자신이 부모로서 역할을 할 때 이를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원가족 경험이 아버지 역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녀 시절에 가정에서 부모와 긍정적인 경험을 한 남성은 아버지에 대한 동일시 과정을 통해 긍정적으로 양육에 참여하였지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가진 남성은 이에 대한 보상심리로 인해 과잉허용이나, 통제적인 양육참여의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박희선, 2016). 이와 같이 원가족 애착경험은 자녀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원가족에서 경험한 애착은 성인이 된 후 아버지로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아버지의 원가족 애착경험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개인에게 내재화되고, 내재화된 경험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쳐 자신이 받은 양육을 좋았던 경험과 좋지 않았던 경험으로 인식하여 자신만의 양육참여로 자녀에게 행하게 된다(조성희, 2011).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원가족 경험을 토대로 아버지로서 생계 부양의 책임과 자녀 훈육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2) 적극적 돌봄 참여자

산업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전통사회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되며 가족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은 더 이상 여성만의

역할이 아니라 인식의 확산되었다. 아버지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 새로운 이해가 형성되고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에 대한 역할분담이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아버지와 자녀의 긍정적인 관계는 유아의 성장과 발달, 정서에 큰 영향을 주며 나아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가 어렸을 때부터 차곡 차곡 형성되어야 한다(최미숙, 송순옥,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지적·사회적 발달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됨에 따라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최영미, 2018). 현대사회의 아버지들은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기존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하던 가부장적 아버지가 아니라 가정에서의 자녀양육과 가사활동에 역할을 분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 (1) 관계를 위한 첫 단추

연구참여자들은 시대 변화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고, 부부관계도 수평적이고 동등하게 바뀌었으며 가사와 육아를 평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적극적 돌봄 참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존재만으로 유대감과 친밀감 그리고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 돌봄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이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아버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경험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첫 단추'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화 형성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금의 시대가 바뀌면서 아빠들도 가사와 육아 모두에 참여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참여자 10)

이제는 하지 않으면 이상하죠. 요즘엔 방임도 아동학대에요.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나쁜 사람인 거죠. 정말로. 낳지를 말아야 하고요. 이러한 시대 흐름은 잘 타고온 거 같아요. 아빠들이라면 이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해요. 아빠 면허증이 필요한 시대인거죠. 이제는.

(참여자 14)

내가 잘해야죠. 아이는 낳고 크는데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아빠는 어렸는데 하려면 내가 잘해야 하는 거 같아요. 시대도 변했는데 아이들 수준도

엄청 바뀐 거 같아요.

(참여자 7)

참여자 10은 시대의 변화로 아버지가 가사 및 육아에 모두 참여한다고 말했으며, 참여자 14는 자녀 돌봄에 참여하지 않고 방임하는 것을 학대라고 말하면서 아빠 면허증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7도 시대가 변해서 아이들이 아버지의 양육을 인식하고 커서도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는 TV 프로그램이나 육아 관련 행사 등에서 아버지의 돌봄 역할이 강조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구참여자들도 이러한 매체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애기들이 흐름을 잘 탔죠. TV에서 그렇게 선전하는데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 붙잡고 아무한테나 말해도 다 알걸요? 그만큼 아빠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니까 우리들도 힘들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참여자 11)

아빠들을 위한 프로그램, 행사들이 많이 개최되고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것을 보며 시대가 변했음을 느껴요. 이제는 육아를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하는 시대예요. 또한 여성에게 당연하게 요구됐던 가사와 아이 돌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듯합니다. 관심문제이죠.

(참여자 5)

참여자 11은 TV 프로그램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이제 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힘들더라도 이를 따라간다고 말했다. 참여자 5도 아버지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버지도 육아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는 아버지의 자녀 돌봄을 중요하고 당연한 일로 인식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으며, 연구참여자들은 이에 순응하고 자녀 돌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가정 내 육아의 비중도 공평하게 바뀌고 있다. 맞벌이 가정에서 부모는 부모, 배우자, 근로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인간으로서 정신적, 육체적, 공간적, 시간적 한계 등에 의해 비취업모보다 심각한 역할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박정자, 2010).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계를 아버지와 분담함과 동시에 가사를

전담해야 하는 이중고로 인해 가족의 정서적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가족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최영미, 2018). 연구참여자들 가운데 맞벌이를 하는 경우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았으며, 아버지로서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경험해 보니 엄마 혼자서 육아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해요. 맞벌이 부부라면 더욱 그렇구요. 저도 처음으로 아빠라는 사람이 됐을 때 육아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 힘든 일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빠의 육아 참여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9)

과거에 비해 현재는 가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으며 아버지도 동등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맞벌이가 점차 늘어나며 혼자서 경제적 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이 사라졌잖아요.

(참여자 1)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거의 대부분이 공동육아를 하지 않을까 예상해요. 가사 일을 제외한 놀아주기가 돌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8)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생업과 육아의 경계를 따로 두지 않으며 부부가 같이 육아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생각이 중심이 바뀌었어요. 모든 것을 아이에게 초점을 두게 됐어요.

(참여자 11)

참여자 9는 맞벌이 부부 경험을 통해 아버지로서 육아에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참여자 1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도 가정 경제 생활을 책임지는 만큼 남성도 자녀 돌봄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자 8이나 참여자 11의 경우도 맞벌이 가정에서 경제활동과 육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고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수평적이고 동등한 입장에서 양육에 참여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자리잡은 성고정관념과 성역할에서 벗어나 아이는 엄마와 아빠 모두가 돌본다는 인식이 많아졌다고 봅니다. 아이들과 같이 병원이나 문화센터를 가거나 등하원을 할 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육아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14)

성평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한몫한 거 같아요. 과거에서 벗어나야 하니까요. 여성 인권이 상승한 게 아니라 이제야 제 권리를 찾은 거죠. 남성들은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같이 양육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4)

아내한테 장난으로 어디 여자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성역할로 아내가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거 보면서 자녀가 보고 배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2)

참여자 14는 기존의 성고정관념이나 성역할을 넘어서 이제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말했고, 참여자 4는 성평등이 실현되면서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되찾은 것이고 남성은 당연히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2는 여성을 동등하게 대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고 이는 자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남녀 성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가정 내의 지위도 동등하고 평등해야 하고 양육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하여 오늘날 아버지의 삶 속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고, 특히 자녀에 대한 친밀감과 관심은 부인과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아버지 본인의 삶의 안정과 만족을 위한 것이 되었다(최영미, 2018). 아버지는 양육에 참여함으로써 자녀와 애착을 형성하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확인하며, 대외적으로 가정을 대표하는 자로서 가정과 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가 성장해 사회에 적응하도록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을 형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성

역할, 책임감 등을 배우게 한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자녀의 사회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도 아버지로서 자녀 돌봄을 통해 애착 형성, 부정 확인, 정서적 교감과 유대감, 성장과 발달 확인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하면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어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와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유대감을 키울 수 있으니 적극적인 육아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13)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통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한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면서 부정 및 아이와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3)

새들은 처음 본 물체를 부모로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인간은 다르겠지만 애착이 생기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잘해주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거 같아서. 남자를 무서워하거나 이러면 또 걱정되잖아요.

(참여자 12)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해야 자녀들이 더 바르게 자라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자녀 돌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2)

과거와는 다르게 단순히 아이 엄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공동육아를 하면서 아이와 아버지 사이 유대관계 및 부성을 느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6)

아버지의 육아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육아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버지의 역할까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친밀감과 사랑은 단순히 아버지의 존재만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참여자 1)



참여자 13은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써 정서적 교감과 유대감을 키울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참여자 3은 육아 참여를 통해 부성, 유대관계를 돈독히 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자 12도 자녀와 애착을 형성하고 자녀가 올바른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로서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참여자 2는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참여자 6은 유대관계의 형성과 부성을 느끼기 위해서 공동육아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고, 참여자 1은 아버지의 역할을 통해 정서적 친밀감과 사랑을 형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와의 유대관계, 부성, 정서적 친밀감, 사랑, 애착, 정서적 안정 등을 형성하기 위해 자녀 돌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아버지로서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확인하고 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는 100% 필요하다 생각해요. 맞벌이일 경우에는 200%이구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모르고 지나치면 분명히 나중에 후회를 할 것 같고 아이들과 벽이 생길 것 같아요.*

(참여자 12)

*부부는 가족계획부터 함께 상의하며 결정하게 됩니다. 엄마나 아빠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임신, 출산, 육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부 모두가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함께 육아를 하면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도 동참하고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기에 아빠의 육아 참여는 필요해요.*

(참여자 14)

*아버지도 아이의 교육 등 결정이 필요한 부분을 아내와 함께 논의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아이 돌봄에 참여해야죠.*

(참여자 13)

참여자 12는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을 확인하게 해준다고 했고, 육아에 참여하지 않아 아이와 정서적 단절이 생길까봐 우려하고 있었다. 참여자 14는 공동육아를 통해 아이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참여자 13은 아내와 교육적 결정을 내리는 데 공동육아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처음 아버지가 된 20-30대 아버지들의 경험에서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자녀 돌봄에 대한 책임에 많이 공감하고 있고, 특히 아버지는 육아 동반자이자 가사 노동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육아는 ‘함께 해야 하는 시대’이며 아버지의 적극적 육아 참

여가 아이와 아버지 사이 유대관계 및 부성을 느끼는 과정이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었다. 아울러 아버지의 적극적인 자녀 돌봄은 자녀들이 정서적 안정을 통해 더 바르게 성장하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가사와 육아 분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 (2)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

하루 중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아버지들이 경제활동 이외에도 가정에서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은 직장에서의 성취 욕구가 높고 업무 부담감이 크며,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 돌봄이나 가사에 참여하는 것을 힘들어하게 된다.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적절히 배분하고 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직장이나 사회의 지원과 지지가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이다.

젊은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에 있어 양육의 역할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바람직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첫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처음이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역할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아버지들은 스스로를 자녀양육에서 중요한 책임자로 인식하면서도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송지은, 2017), 가정과 일의 양립에서 내적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 원부모의 아버지에게서 자녀 양육 기술을 습득한 경험이 부족하여 양육자로서 아버지 역할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손순복, 2016). 즉, 20-30대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에 적극적 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경험과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고 아버지로서 양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원가족 경험에서 습득한 아버지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시대가 바뀌고 남녀의 성평등이 이루어졌으며 아버지의 양육이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 아버지 역할의 경험이나 육아 정보의 부족 등을 이유로 자녀 돌봄에 참여하기 힘들어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내가 잘하고 있는거 같다고 착각하고 있는거죠. 왜냐면 저는 아직 남자가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변하지 못한 제가 안쓰럽기도 한데 아직은... 그래요...육아 참여도 잘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참여자 7)

일이 늘어난 기분도 들어요. 내가 본 아버지는 저렇게만 하셨는데 나한테는 더 많은 일들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친구들과끼리 이야기하면 우스개 소리로 지하주차장에서 아빠들 정모를 볼 수 있대요. 다들 집에 들어가기 겁나는 거죠. 또 일하러 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내가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건 안되겠죠 요즘 세상에?

(참여자3)

참여자 7은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경제활동을 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응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참여자 3은 자신의 원부모 경험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떠올리면서 밖에서 일만 하셨었는데 자신은 아버지로서 육아까지 감당해야 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젊은 아버지들은 시대적 변화를 인지하고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당연히 받아들이면서도 원가족 경험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답습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로서 경제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아내의 이해와 도움을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내가 이해해주길 바라는 거죠. 내가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만큼. 아빠면서 남편 되기란 힘든 거 같아요. 처음하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같이 이해하면서 도와야죠.

(참여자 4)

자영업을 하다 보니 아이 돌보는 게 쉽지 않죠. 아내는 일을 안하니까 아이를 봐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수입이 그래도 안정적이기도 하고 아내가 하고 싶은 건 해주게 하니까. 남편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 하면 요즘 안되긴 하는데.

(참여자 10)

저녁에 아내가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새벽에 못 자고 있으면 사실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몰래 자는 척한 적도 있어요. 힘들기도 하고 내가 일어난다고 달라지는 게 없을까봐. 아내가 괜히 옆에 있으면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제 생각이예요.

(참여자 14)

참여자 4는 아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아내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참여자 10은 가정주부인 아내가 주양육자로서 자녀를 돌보고 자신은 안정적 경제 수입을 제공한다고 진술했다. 참여자 14는 밤에 아기가 우는데도 피곤하기도 하고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거란 판단에 자는 척했다고 한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원가족의 부모 역할을 경험으로 갖고 있으면서 변화한 시대에 적응하려는 과도기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나 아버지로써의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양육의 부담을 아내에게 맡기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아버지의 자녀 돌봄 참여가 힘든 이유로 대부분 직장에서의 업무로 인해 시간이나 정신적 여유가 부족하고 스트레스 및 육체 피로로 인해 육아나 가사를 분담하기 힘들다고 진술했고 있었으며, 자녀 돌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제대로 돌봄을 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 힘들다고 했다.

우선 가장 큰 핑계는 일 때문인 것 같아요. 하루종일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말에는 쌓인 피로를 풀어야 한다는 핑계로 육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해요. 또한 정보의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

참여가 힘든 가장 큰 이유는 회사 업무 때문입니다. 회사 일로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육아 참여가 힘든 거죠. 오후 7시에 집에 도착해서 밥 먹고, 씻고, 아이들과 노는 시간을 조금 보내고 나면 시간에 쫓기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2)

경제적 이유라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회사 일에 집중해야 하고 야근이나 주말 출근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빠들의 체력이 많이 떨어져 육아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돼요.

(참여자 5)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면 소방서에서 지내는 시간이 꽤 길거든요. 교대근무 당직을 서다 보면 그러고 들어오면 힘이 쭉 빠져요. 그리고 솔직히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그래서 가사참여에도 소홀해지는 거 같아요. 아내도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진짜 이기적이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면 아무것도 못 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합리화하면서 쉬기도 해요.

(참여자 7)

참여자 1은 직장에서 쌓인 피로 때문에 육아에 참여하기 힘들고, 참여자 2는 업무가 과중하여 가정에서 보낼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자 5도 회사 업무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고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육아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참여자 7은 소방관이라는 특수직으로 야근이나 당직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심해 가정에서 가사나 양육에 참여하기 힘들 정도라고 진술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중에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야근이나 주말 출근까지 하게 되면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연구참여자들은 평일 퇴근 후에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잔업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도 증가가 육아 참여를 힘들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육아에 조금씩 참여하면서 육아란 피곤해도 참여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4)

대한민국 직장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평일에는 저녁 이후에나 육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육아 외에도 해야 할 집안일들이 많아 퇴근하고 청소나 설거지, 빨래 등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집안일을 모두 마친 후에는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참여자 3)

자영업자나 회사원 모두가 육아에 참여하기 힘든 이유는 물론 개인의 성향 차이도 있겠지만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사회적으로 노동에 치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고, 상사와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잖아요. 노동에 찌든 채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참여자 9)

자영업은 일하는 만큼 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를 생각해서 일하는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인 부분이 육아 참여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사실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시간만 괜찮으면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워요.

(참여자 10)

참여자 4는 직장생활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육아

에 참여하려 노력한다고 했고, 참여자 3은 평일 퇴근 이후에는 육아나 가사를 분담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참여자 9는 경제활동을 전담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진술했으며, 참여자 10은 자영업자로서 생계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직장 생활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 때문에 육아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직장 생활로 인해 자녀 돌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경제적 지원을 통해 뿌듯함을 느낀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유모차나 장난감, 아기띠 등 비싼 육아 물품을 구매하면서 아버지로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지만 비싼 육아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이를 보상받는다라는 것이다.

*요즘 아빠들은 자동차보다 유모차가 클래스가 더 중요해요. 지나가다보면 새 뭐 탔네 애는 뭐탔네 이제 우리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꽤 좋은 거 타고 싶죠. 비싸더라도 나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요 근데.*

(참여자 1)

*저랑 저의 아버지가 같이 아기띠를 사러 갔거든요. 그립감을 저랑 아버지한테 맞춘거예요. 주로 매는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 저니까 이렇게 맞춰서 사면 내가 아이라 붙어 있으면서 돈도 좀 쓰고 붙어있으려 노력한 거 같아 기분 좋아요.*

(참여자 6)

*아내가 아기띠를 사러 가자길래 내가 왜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가 보니까 너무 설레더라고요. 이게 요즘엔 아빠가 안아야 또 있어 보여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매보고 안아서 들고 다니면서 싱글벙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다 필요없는데 그냥 뭐라도 한 거 같아서 좋더라고요*

(참여자 12)

참여자 1은 비싼 유모차를 구매하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고 했고, 참여자 6은 아기띠를 구매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고르고 돈을 지불하면서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참여자 12는 아기띠를 구매해 아기를 매고 다니면서 설레고 기분이 좋았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경제 활동으로 인해 자녀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육아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돌봄을 위해 정보를 찾으려 해도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심적 부담감을 갖게 된다고 호소하였다. 양육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 아버지들은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를 통해 자녀 돌봄에 관한 정보를 찾으려 하지만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고, 책은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다.

네이버 다 거짓말이잖아요. 웃기려고 쓰는 글들이 많은 정보창에서 뭘 얻겠어요. 그리고 누군 맞다 누군 아니다 하는데 함부로 제가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가 겁나잖아요. 솔직히 그 꼬매난 애한테.

(참여자 8)

책이나 이런 것들도 과거 자료와 현재 자료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면 큰일이죠 뭐.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한테 전화하기도 해요. 아내도 다 알 것 같지만 아내도 아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연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웃겨요. 잘해주려다가 잘못하면 큰일이잖아요. 특히 음식도 그렇고.

(참여자 11)

참여자 8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육아 정보를 찾으려 해도 출처를 알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많아 활용하기 어렵다고 했고, 참여자 11은 서적을 통해 육아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현재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부모님이나 장모님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했다. 자녀 돌봄에 관하여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넘치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자녀 돌봄을 지원해줄 수 있는 자료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양육의 경험이 없는 초보 아버지의 경우 쉽고 정확하게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2. 20-30대 아버지들이 경험한 ‘아버지로서의 역할’

영유아 자녀를 둔 20-30대 아버지들은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자이자 아내의 버팀목인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 결과 <표 6>과 같이 아버지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구분하여 중심 주제 2개와 5개의 하부주제, 17개의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표 6> 20-30대 아버지들이 경험한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남편으로서의 역할’

중심주제	하부주제	항목
아버지로서의 역할	놀이 친구	- 신체 놀이 - 책 읽기 - 감정적 교감
	추억 저장소	- 사진 - 유튜브 남기기 - 함께 목욕 - 소통하기
	발달 조력자	- 발달 검사 - 공부 도와주기 - 올바른 인성 형성해주기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 마음에 스며들기	- 여행 - 드라이브 - 양육 가치관 이해하기 - 처가 일 돕기 - 아내만의 휴가
	아내의 손발 되어주기	- 적극적 가사참여 - 힘든 일 돕기



## 1) 아버지로서의 역할

사회, 경제적 변화와 발전에 따라 가치관 및 생활 양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버지는 공동육아책임자로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부모로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책임이 증가함에 따라 가사, 자녀 양육이 이제는 어머니의 고유한 역할이 아니라 부부 공동의 과제로 인식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이현숙, 2012).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가사 활동 및 육아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녀와 함께 놀이하거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위해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유아들은 아버지와의 놀이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과 충족감을 갖게 되고, 즐거움, 만족감, 성취감, 기쁨의 감정을 느끼게 되어 타인과의 상호작용 증진 및 창의적인 발상을 기를 수 있게 된다(김숙이, 전정민, 강혜경, 2013).

젊은 아버지들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단순한 보조자의 역할이 아닌 놀이 친구이자 적극적 양육자로 전환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놀이 친구’, ‘추억만들기’, ‘자녀발달에 대한 관심’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젊은 아버지로서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 돌봄 참여자가 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돌봄에서 놀이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부족하고, 가사 분담에도 익숙하지 않았으며, 자녀들과 대화하거나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1) 놀이 친구

아버지가 자녀와의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신체 활동을 통해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자녀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행 연구를 통해 아버지와 자녀의 적극적 놀이 참여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한명숙, 2007), 자녀의 사회성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진혜, 2009). Parke(1981/1989)는 놀이 참여에서 아버지가 육체적 놀이를 통한 자극을 주는 반면, 어머니는 언어적 자극을 많이 한다고 지적하면서 아버지의 육체적 자극과 어머니의 언어 자극이 상호보완적이라고 하였다. 아버지는 자녀와 놀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육체적 자극을 주고 어머니와는 다른 독특한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돌봄에 참여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주로 놀이 친구의 역할을 많이 하였으며 구체적 활동으로는 ‘신체 놀이’, ‘책 읽기’, ‘감정적 교감’ 등을 하였다고 한다. 아버지로서 신체 놀이나 책 읽기 등이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느끼는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눈 뜨고 아내와 함께 아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다시 집에 들린 후 출근을 합니다.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서 일찍 퇴근하는 편이에요. 길게 놀아주지는 못해도, 저녁 시간은 아이와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감정적 교감을 매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자 9)

자녀들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 지원을 위해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참여자 1)

나름대로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합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놀아 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감정적 교감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3)

퇴근 후에 아이와 장난감 놀이, 책 읽어주기, 신체 활동을 하며 육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엄마에 비해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기는 한데, 최대한 아이와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을 다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4)

참여자 9는 어린이집 등교를 돕고 퇴근 후에 자녀 돌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자녀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요시하고 있다. 참여자 1은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참여자 3은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보내려 노력한다고 했다. 또한, 참여자 4는 자녀 돌봄에서 놀이 친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간은 짧더라도 열정적으로 놀아주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바쁜 직장생활에서도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를 통해 자녀와의 정서적 교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돌봄에서 아이와 놀아주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원부모 경험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통해 놀이의 방법을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육아에 대한 경험이 없고 원가족의 경험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경제활동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다양하게 습득하지 못했던 것이다.

놀다 보면 가끔 했던 놀이들을 자주 하곤 해요. 귀찮다기 보다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까꿍만 해도 좋아하는데 애가 이걸 좋아하니까 나는 이게 맞는 거 같잖아요. 아내는 뭐라 하는데 안 고쳐지죠. 이 방법이 쉬우니까.

(참여자2)

아이를 등에 태워 기차놀이를 하거나 숨바꼭질도 하면서 신체적으로 놀아주기도 합니다. 간혹가다 책을 읽어주기는 하는데, 잘 읽어주고 싶은 마음에 아이 엄마가 해주는 것처럼 읽어주다 보면 부끄럽더라고요.

(참여자 4)

참여자 2는 자녀와 놀아 주는데 다양한 놀이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참여자 4는 신체 놀이를 주로 하는데 책 읽기를 할 때는 부끄러워서 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아버지로서 자녀와 놀이를 통해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육아 놀이 경험의 부재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놀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 (2) 추억 저장소

아버지 양육참여는 전통적으로 경제적 지원과 물리적 환경 제공자의 역할이 중요시 되었으나 시대 흐름에 따라 점차 애정과 관심을 기반으로 한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로 까지 확대되었으며, 그 범위도 자녀와의 놀이 활동과 문화생활, 자녀의 사회화와 교육 지원 등의 관계적 지원은 물론 부부가 함께 실천하는 공동양육과 능동적인 아버지가 되기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미현, 2014). 특히 20-30대 젊은 아버지들은 ‘친구 같은 아버지’로 자녀와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고 있었으며,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의 순간을 함께 하고 자녀와 함께 보낸 일상의 시간을 추억으로 간직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20-30대 아버지로서 자녀 돌봄 역할을 통해 자녀와 추억을 만드는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아이와 함께 하는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거나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자녀와 목욕을 하거나 소통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침 7시 30분에 기상해 일에 갈 준비를 합니다. 보통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도착하면 7시 정도가 되고 집에 도착하면 아이들 식사를 도와주면서 약 8시까지 같이 밥을 먹는데, 자녀 2명과의 놀이 시간을 각기 따로 가져 8시부터 1시간 동안은 둘째 아이를 목욕시키고 놀이 시간을 갖다가 재운 후에 9시부터 첫째 아이와 놀이시간을 가져요. 첫째 아이와 놀아주고 양치까지 시킨 후에는 잠들기 전 12시까지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지다 잠에 들어요.

(참여자 2)

저는 첫째와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타기, 풍선놀이, 운동, 요리를 하고 둘째와는 목마놀이, 목욕놀이와 같이 주로 신체적인 놀이를 즐겨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아이와의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겠죠.

(참여자 3)

평일에는 퇴근 후에 아이를 보기 때문에 사실 육아 참여도는 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주말에는 꽤 많은 시간을 아이에게 쏟고 있어요. 사진도 함께 찍고, 유튜브 영상도 제작하면서요.

(참여자 8)

참여자 2는 두 명의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퇴근 후 같이 목욕을 하고 놀이 시간을 갖는다고 했다. 퇴근 후 저녁 7시 이후에는 자녀 두 명을 번갈아 씻기고 함께 놀이시간을 갖느라 늦은 밤이 되어서야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참여자 3은 자녀와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나중에 자녀가 이를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길 바라고 있었다. 참여자 8은 평일에는 퇴근 후에 시간이 부족하지만 주말에는 많은 시간을 자녀와 보내려 노력하고 있으며 사진이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추억을 기록한다고 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돌봄에 적극 참여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가짐과 동시에 함께 한 놀이 활동들이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었다.

### (3) 발달 조력자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가 많을수록 자녀의 사회성 및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형성에 도움이 되고 성역할 고정관념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강민성, 김경은, 2017). 또한, 아버지의 자녀 돌봄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질을 높여주고 자녀의 지적 능력이나 창의성, 상상력, 학업 성취욕, 융통성 등을 증진하며 이타심, 관대함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이종미, 2013) 이와 같이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아버지의 적극적 육아 참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특히 자녀 양육에 참여하면서 일상생활과 놀이를 함께 하면서 교육적으로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경제적 책임을 지는 사람의 의미가 무색해졌어요. 가족이라는 구성원 중 한 명으로 인식해야 하고, 자녀 돌봄에 있어서 역할을 구분하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이의 발달에 함께 노력해야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며 성평등이 대두되고 있어 아버지의 역할은 정말 가족으로서 함께 아이의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죠.

(참여자 1)

아빠 입장에서 할 수 있고,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담해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엄마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 각각이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1)

경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아이 돌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이 많은 만큼 공동육아의 인식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아 아버지의 육아 참여도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성장에 있어 교육 및 외부 활동 등 부부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등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참여자 13)

참여자 1은 아버지의 역할이 경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것에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녀 돌봄을 함께 하고 자녀의 발달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자 11은 아버지로서 전담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어머니와 함께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참여자 13도 적극적인 자녀 돌봄에 공감하고 있었고 자녀의 성장과 교육을 위해 부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아버지로서 자녀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확인하여 교육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널리 알려진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신체적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과 훈육에도 관심이 높았다. 원가족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에서 엄격한 훈육을 습득하여 자신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훈육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바르게만 자라다오.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참여자 9)

아이가 잘못된 건 따끔하게 혼내야죠. 아동학대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 선을 지키면서 야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할 거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 결국 욕먹는 건 부모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가 욕먹는 거니까 그게 싫어요.

(참여자 13)

아이를 훈육할 때 정말 마음이 미안해요. 그냥 놀아주고만 싶은데 뭔가를 던지고 그럴 때 이게 진정이 안 돼서 조금 엄하게 했을 때 자식이 날 싫어하게 되고, 멀어졌다고 느낄까봐. 그런데 그것도 아빠랑 엄마가 감내해야죠.

(참여자 10)

참여자 9는 자녀가 바르게 자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참여자 13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엄격하게 훈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자 10은 훈육할 때 자녀가 자신을 싫어하거나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를 감내하고라도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젊은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교육에 있어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원가족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며 앞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에서 아버지의 엄격한 훈육을 긍정적으로 회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자신의 아버지가 엄격하게 훈육해서 힘들었지만 자라고 나니 자신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며 자신의 자녀도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버지들이 어린 시절 경험한 긍정적, 부정적인 아버지의 양육방식은 어떤 형태로든 정신적인 모델(Mental Model)이 되어 현재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권영임, 2012). 단순히 행동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정서의 모방으로서 어릴 때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느낀 긍정·부정의 정서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원부모가 자신을 양육했던 방식을 답습하거나 전혀 반대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인데, 아버지가 원부모로부터 체험한 경험에 대한 자각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내면화된 사회화 경험은 성인이 된 후 아버지됨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행동에 반영되어 나타나게 된다(변명숙, 2005). 즉,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양육할 때 엄격하게 훈육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자신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 2) 남편으로서의 역할

좋은 부부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중요한 지원체계로 작용하며,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만족은 배우자의 지원 및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최영미, 2018). 남성의 아버지 역할 경험은 자녀를 중심으로 부인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부모로서의 삶을 함께 해나가는 부인이 아버지 역할을 얼마나 기대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쉽고, 자녀의 기질이 까다로운 경우라도 부인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수행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손순복, 2016). 부인은 남편의 정서적

지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부인의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남편은 가정 내 아버지 역할 수행이 만족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아끼고 아내의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것이 아내의 정서적 지지를 받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아버지로서 양육에 대한 참여를 높여주고 만족도를 상승시켜준다.

### (1) 아내 마음에 스며들기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원만한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양육이 실천됨으로써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 자녀의 생활습관지도 등의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이며(박성덕, 서연실, 2016), 어머니의 행복감은 물론 공동양육지원, 자기 성장에 기여하고(김산하, 2015), 후속 출산계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중훈, 양소영, 성지현, 2012). 남성이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배우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배우자가 남편을 정서적으로 격려하고 지지함으로써 원만한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선순환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부부관계는 원활한 가족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며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쳐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으로서 아내의 마음을 항상 확인하고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아내의 손발이 되어 가사를 분담하고 아내의 고된 육아를 덜어주고자 하였다. 또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육아나 가사를 분담하며, 아내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려 노력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자녀 돌봄에 관하여 항상 아내와 소통하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성심을 다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장인 어른께서 입원을 하게 되어 병간호를 하러 간 아내를 대신해서 육아 및 가사를 책임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남편의 도리가 아닐까요?

(참여자 2)

아내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아이와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주로 합니다. 아내는 이런 사소한 행동이 힐링이라고 표현하더라구요.

(참여자 7)

아내는 내가 아이의 가벼운 교육일지라도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공감을 가지고 같이 활동합니다.

(참여자 11)

평일 퇴근 후에 아기를 보기 때문에 사실 육아 참여도는 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주말에는 꽤 많은 시간을 아이에게 쏟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하면 아내한테 혼나요.

(참여자 6)

기본적인 놀이나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만 참여하고 있고 정서적 교감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요구사항 등의 말은 잘 듣는 편입니다.

(참여자 9)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로 남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지 저도 편해요.

(참여자 10)

참여자 2는 아내를 대신해 육아와 가사를 전담한 경험이 있었는데,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자 7은 아내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드라이브를 한다고 했고, 참여자 11은 아내가 요구하는 바에 부응하여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참여자 6은 주말이라도 자녀 양육에 참여해야 아내에게 혼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참여자 9는 자녀 양육에서 정서적 교감이 부족한 편이지만 아내의 요구사항은 들어주려 노력한다고 했다. 참여자 10은 좋은 아버지와 남편이 되기 위해 고민하고 있고 아내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주양육자인 아내의 요구사항에 따라 자녀 돌봄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2) 아내의 손발 되어주기

결혼생활의 긍정적인 측면과 아버지의 능동적인 양육참여와의 관계가 일관성 있게 제시된 것을 토대로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아버지의 만족이 아버지 역할수행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김정주, 2010).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는 배우자의 고충을 들어주고 가사활동을 돕는 데 적극적이며, 배우자의 정서적 격려와 지지를 얻음으로써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으로서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신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육아와 가사에 있어 아내의 손발이 되어 도와주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하루 1-2회 정도 육아에 참여하고 있었고, 평일 퇴근 후 또는 주말에 육아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부족해 참여 정도가 평균 이하라고 생각했다.



자녀 돌봄은 아이 수유, 놀이, 낮잠 채우기이고, 가사참여는 청소 및 정리정돈, 설거지, 빨래, 아이 젖병 세척, 아이 소모품 채우기, 장난감 소독, 분유 포트 물 채우기라고 했을 때 자녀 돌봄은 하루에 1-2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아이 엄마가 돌봄을 하고 있을 때에는 가사 일을 합니다.

(참여자 3)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서 아내가 부탁하는 일에 참여하거나 가사 일을 주로 많이 했어요. 아내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육아에 도움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빨래 및 빨래 개기, 설거지,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등 가사 참여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아이들 학습에 관심을 가져 학습지나 공부할 때 옆에서 봐주고 있어요.

(참여자 12)

집에 있는 시간에는 아이 엄마와 교대로 자녀 돌봄과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있어요. 보통 휴무일보다 출근하는 날이 많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내의 힘든 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6)

아이 식사 준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에 참여하고 있고 아내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거 같아요. 특히 가사 일은 충분히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아 주는 것과 같이 아이와 감정적으로 교감하는 부분에서는 아내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참여자 7)

가사에는 일부 참여하긴 해요. 육아에는 세세하게 참여하기 어려웠지만 빨래, 설거지와 같은 단순 가사 일에는 참여한 편이에요. 어렵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일들을 신경 쓰기는 어렵더라고요.

(참여자 9)

참여자 3은 육아 참여는 하루 1-2회 정도이고, 아내가 육아를 하는 동안 가사를 분담한다고 했고, 참여자 12는 가사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자녀의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자 6은 휴무일에는 적극적으로 육아와 가사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고 했고, 참여자 7은 자녀와 정서적 교감은 부족하지만 가사 참여에 최선을 다해 아내가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참여자 9는 단순 가사를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퇴근 후나 휴무일에 아내의 손발이 되어 육아나 가사를 분담하고 있었으며, 시간과 경험이 부족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 3.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방안

영유아 자녀를 둔 20-30대 아버지들은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방안으로 아버지 본인의 노력과 돌봄을 위한 환경 조성을 호소하였다. 그 결과 <표 7>과 같이 스스로 성장하는 아버지와 자녀 돌봄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구분하여 중심 주제 2개와 5개의 하부주제, 10개의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표 7>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방안

중심주제	하부주제	항목
스스로 성장하는 아버지	자녀 돌봄을 위한 적극적 노력	- 강한 의지 - 정보 탐색
	휴식과 재충전	- 휴식 - 혼자만의 시간
자녀 돌봄을 위한 사회적 지원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 아버지의 육아를 위한 인식 전환 - 육아지원제도에 관한 홍보
	법적 제도 개선	- 육아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 - 정부와 회사의 연계 지원
	사회적 가치공감	- 사회적 시선 개선 - 공동육아를 위한 환경 조성

## 1) 스스로 성장하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우자와 가사를 분담하는 것을 넘어서 자녀 양육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단순히 배우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정서적 교감을 이루고 스스로 성장해나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자신의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임무이다. 아버지의 능동적 양육참여를 위하여 가정이나 사회에서 아버지 양육경험에 대한 지지 및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아버지 스스로도 양육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1) 자녀 돌봄을 위한 적극적 노력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본인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라는 공통된 주제를 통해 아버지들은 대인관계에서 동질감을 느꼈으며, 아버지로서 경험의 증가는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고민하면서 스스로 행동의 변화도 나타나게 된다(황정해, 2003).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들은 가정에 대해 공헌감 및 존재감을 느끼며 부부관계에도 긍정적 효과를 줌으로써 아버지로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양육참여가 높을 때 아버지 역시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높아지고, 좌절감과 불안감이 감소하며 부모 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양육참여가 높은 아버지들은 양육과정 중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자녀양육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아버지로서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김해력, 2013).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성장하는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자녀 돌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경제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스스로의 의지를 강하게 다지고 육아 참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녀와 아내를 위해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정부나 지자체에서 육아지원을 전보다 더 많이 해준다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본인의 의지로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각자 사정이 달라서 육아 참여를 못할 수도 있지만 꼭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해서 육아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중요한 것은 아기는 엄마 혼자 낳은 것이 아니라 아빠와 함께 낳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마음 속에 품고 아기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지 않을까요?*

(참여자 8)

아시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노력하는 아빠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힘들고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이유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라나는 아이를 생각한다면 모두 핑계가 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아빠들이 모두 힘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사실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참여자 3)

우리가 아빠가 되고 나서야 진짜 남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이 진짜 남자가 됐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른이길 바래요. 우리가 마음먹기 달렸잖아요. 더 잘할 수 없다면 노력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단 못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7)

저보다 일찍 애를 낳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00야 너도 아빠가 되면 알겠지만 지금 내가 힘들어 보일텐데 힘든 게 맞다. 그런데 힘든데 내가 불행해 보이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불행해 보이지는 않지만 표정은 행복해 보이진 않다고 이야기 하니 친구가 조언을 해줬어요. 친구가 말한 가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옛날의 그런 끈대같은 가장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 친구가 멋졌고 누구보다 아빠 같아 보였어요.

(참여자 10)

아이뿐만이 아니라 아빠의 역할은 아내의 평생 동반자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내와 아이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노력할 거예요. 아내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여자 4)

고생한 아내 덕분에 제가 있고, 제 자식이 있어요. 그 둘을 봐서라도 저는 일을 하는 게 힘들어도 지칠 수 없어요. 뭐든 재밌다 생각하다 보면 좋은 날도 오겠조 뭐.

(참여자 11)

참여자 8은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보다 중요한 것이 아버지로서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했고, 아내와 공동육아를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자 3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은 핑계에 불과하고 자녀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참여자 7은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노력해서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참여자 10은 힘들어도 좋은 아버지가 되는 일은 멋진 경험이라고 친구와의 대화를 언급했다. 참여자 4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참여자 11은 힘들지만 아내와 자녀를 위해 즐겁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신력으로 버틴다는 표현을 했다. 자녀와 아내를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버틴다는 표현에서 현대 우리 사회의 아버지들이 겪고 있는 고단한 삶을 짐작할 수 있었다.

버텨야 해요. 엄청 힘든데 무너지면 안 된다 정신개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할 수 있어요. 우리 군대도 다녀왔잖아요. 아이와 아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거든요. 이제는. 저도 가족이 전부인 사람이라 버티는 힘을 기르고 있어요.

(참여자 14)

힘들지만 결국 내 아내 내 자식이잖아요. 그게 내가 버틸 수 있는 이유예요.

(참여자 1)

아내가 한번은 혹시 힘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말 없이 그냥 장난처럼 한숨 한번 내뿜었는데 동영상 하나 보여줬어요. 아이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혼자 흥얼거리는데 저에게 힘내라고 하는 거 같았어요. 약간 벅차오르는 듯한 감정을 느꼈는데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걸 보고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귀엽다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열심히 한 거 같아요.

(참여자 5)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죠. 동요 중에 넌 할 수 있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 들어보세요.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남들도 다하지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나 자신에게 말해주면 돼요.

(참여자 13)

저는 아무 생각 안 하면서 버티기도 해요. 더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 스스로 화날 일을 없애는 거죠.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참여자 10)

참여자 14는 정신개조, 군대와 같은 강한 표현을 써서 버틴다는 의미를 강조했고, 참여자 1은 내 가족을 위해 힘들지만 버틴다고 했다. 참여자 5는 힘들지만 아내가 보여준 아이의 노래 영상을 보고 다시 힘을 냈다고 하고, 참여자 13은 마인트 컨트롤을 하면서 스스로 힘을 낸다고 하고, 참여자 10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버틴다고 표현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에서의 경제활동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소화하기 위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정신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돌봄을 위해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나 매체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도 이제는 시대를 따라 가야죠. 아내를 도울 수 있는 건 스스로 찾아야 하고요. 집안일도 말하기 전에 스스로 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정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인터넷 같은 걸 통해 알아보는 것도 기본이 돼야 할 거 같아요.*

(참여자 2)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나오곤 하는 부모교육들을 찾아봐요. 저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사실 아이한테만 집중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아내 따라 센터에 갔다가 부모를 위한 교육도 엄청 많더라고요. 시간이 날 때 일회성 수업의 경우 저는 참여하곤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어요. 놀이에 대해 알 수도 있었고, 아빠 스스로 마음을 컨트롤하는 방법들도 배울 수 있었거든요.*

(참여자 6)

*아내가 가끔 책을 추천해 줘요. 읽기 싫은데도요. 그래도 시간이 날 때 같이 앉아서 TV를 안 보고 책을 읽어요. 근데 의외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지금 이 정도가 되나? 우리 아이한테 장애가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아이의 성장에도 관심이 가고 또 아내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가정적인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참여자 9)

참여자 2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육아나 가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참여자 6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부모교육에 참여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참여자 9는 육아 관련 서적을 읽는 것이 자녀의 발달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내와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 (2) 휴식과 재충전

현대사회의 아버지는 사회적 역할을 가지며, 가정에서는 아내와 자녀를 책임지는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김연진, 김수영, 2015). 직장에서의 사회생활과 가정에서의 양육 및 가사활동에 참여하느라 현대사회의 아버지들은 바쁘고 피곤하다. 직장과 가정에서 얻는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시간적, 육체적 휴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20-30대 아버지들은 휴식 시간에 게임이나 음주를 한다고 응답했다. 연구참여자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의 계기로 삼아 육아와 가사에 참여할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대부분 쉬는 시간에는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신다고 했다.

자기 전에 유튜브를 보거나 폰게임을 하곤 해요. 아내도 그건 이해를 해주는데 소소한 나만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힐링이 돼요. 그러다 편하게 잠들거나 아내한테 재밌는 걸 보면 이야기하다가 잠드는 게 저한테 가장 큰 힘이에요.

(참여자 8)

휴식은 아버지들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무작정 쉬자는 건 아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이랑도 하면서 쉽스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내가 지치면 안되니까.

(참여자 12)

아이 재우고 아내랑 술을 마시기도 하고, 가끔 혼자 창밖보면서 혼술하는데 오늘 하루 고생했다. 나에게 포상을 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냥 힘든 게 가끔은 싹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쉬고 싶었던 거죠. 그냥 그런데 그런 게 충전이 되고 다시 활력을 얻게 해줘요. 그런 것마저 못했다면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내도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같이 화이팅을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참여자 6)

주말에 아이와 아내를 위한 시간을 투자를 하지만 자기 직전 정도에는 나만의 여가시간을 꼭 확보해서 환기를 시키려고 해요 저는. 그 시간엔 게임을 주로 하는데 그 시간에 게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누구겠어요. 비슷한 아빠들이잖아요. 컴퓨터에서 모여서 그냥 하루 이야기하면서 졸릴 때까지 게임하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쉬는 느낌이 들어요.

(참여자 3)

배터리도 오래 쓰면 닳고 에너지가 사라지잖아요.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방전되기 전에 충전을 해야 해요. 아마 우리가 배터리를 쓰다 보면 언제 닳는지 모르듯이 부모들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우리들의 에너지를 소모했는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틈틈이 충전을 해줘야죠. 바깥을 나가기도 하고 친정에 잠깐 아이를 맡기기도 하고요.

(참여자 14)

참여자 8은 잠자기 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것을 휴식이라고 했고, 참여자 12는 친구를 만나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도 휴식을 취해야 지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자 6은 아이를 재우고 술을 마신다고 했고, 참여자 3은 비슷한 처지의 아버지들과 컴퓨터로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 14는 틈틈이 휴식을 통해 재충전을 함으로써 다시 힘을 얻는다고 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게임이나 영상 시청, 음주 등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한다고 응답하였는데, 휴식 시간이 부족한 탓에 자기계발이나 여행과 같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자녀 돌봄을 위한 사회적 지원

연구참여자들은 아버지의 자녀 양육을 위한 홍보나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자녀 돌봄을 위해서 인식이 전환되도록 당위성에 대한 홍보,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나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부부 공동 육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과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좋은 제도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육아 지침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1)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연구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의 방법 가운데 공익광고 등의 홍보를 통하여 아버지 영유아 돌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전문적인 교육 영상 배포와 아버지들의 육아지원제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를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칭찬받을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종종 매체에 육아를 하는 아버지를 특별한 시각으로 비추는 경우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1)

SNS상에서 유행하는 ‘맘’들이 사람들의 생각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에서도 이와 같이 육아지원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잘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이를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참여자 5)

회사 내에 있는 복지조차 정보가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라에서 지원되는 제도를 대부분의 남성 직장인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져 정보를 찾아보더라도 알기 쉽게 정리된 자료들이 없어 하나하나 정부 기관에 재문의의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회사를 통한 홍보 및 정보제공, 정부 기관의 정보 제공처에서도 좀 더 쉬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13)

참여자 1은 육아에 참여하는 아버지를 당연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를 통해 사회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육아에 참여하는 아버지를 더 이상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게 되길 희망했다. 참여자 5는 정부의 육아지원제도나 혜택에 관해 간단하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홍보를 SNS상의 ‘맘’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참여자 13은 남성 직장인들이 육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 내에서 홍보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아버지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라고 육아지원에 관한 제도나 지원에 관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육아지원을 위한 제도의 강화와 정부 및 회사가 연계하여 정책을 지원하도록 법적 제도 개선을 바라고 있었다. 이들은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임신 지원금, 출산지원금, 육아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출산휴가, 임신바우처(국민행복카드), 임신부 꾸러미, 아동수당 및 어린이집 지원, 필수예방접종 무료 접종 등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일부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보육료 지원이나 출산 시 주는 일정 금액, 무료 접종, 어린이집 원비 지원 정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아이돌봄, 근로 단축근무 등에 관해서도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육아지원제도가 낮은 복지제도로서 회사의 대체인력도 부족하여 그 실효성이 낮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변화된 사회환경에 발맞추어 육아지원제도도 발전해야 하고, 제도 지원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회사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양육수당이나 육아휴직, 출산장려금 등에 관해 들어보긴 했는데 어떻게 받는 건지 몰라요.

(참여자 4)

솔직히 출산휴가, 육아휴직 말고는 잘 몰라요. 대충 뭐가 있다는 건 아는데 아내가 보육교사이다 보니 알아서 해서 저는 그냥 달라는 서류들만 챙겨줬죠. 아내가 됐다고 했으니까 따로 확인하지 않으며 됐다고 알고 있어요.

(참여자 11)

제가 알고 있는 제도는 무료 접종, 어린이집 원비 지원 정도입니다. 그때는 중요성을 잘 몰랐고, 못 느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겪었던 어려움들이 해소가 되었던 것 같아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제도들이 많겠지만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아이들의 행복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많은 제도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12)

참여자 4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고 했고, 참여자 11은 육아지원제도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아내가 이를 담당한다고 하였으며, 참여자 12는 일부 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이와 같이 육아지원제도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법적 제도 개선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육아지원제도에 관해 알고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이나 현실적인 상황들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인식하였으며, 아직은 지원제도가 주는 혜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에 대한 혜택을 아버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요.

(참여자 1)

사실 아버지를 위한 사회적인 육아지원제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육아휴직이 있지만 현실적으

로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5)

육아지원제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자영업자에게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 임신했을 때 받았던 50-60만원의 지원금은 확실히 부족해요. 또 자영업자들은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없기도 해요.

(참여자 9)

출산휴가, 육아휴직, 돌봄서비스 등을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제도적으로 10일 미만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회사에서는 3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또 자연분만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3일을 사용해 배우자를 케어할 수 있지만, 자연분만이 아니라면 회복을 위한 입원 기간이 일주일로 늘어나기 때문에 4일 정도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거나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참여자 13)

출산휴가, 육아휴직, 아이돌봄, 근로 단축근무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같은 자영업자들은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와 같은 제도를 사용할 수 없기에 이들을 위해서 육아 도우미 등의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14)

보육료 지원이나 출산 시 주는 일정 금액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둘째나 셋째가 있을 때 나오는 혜택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좋지 않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라에서 공약으로 내거는 혜택들은 대부분 실질적인 지원이 약하기 때문에 관심이 잘 안가요.

(참여자 10)

아빠 육아휴직이나 아빠 출산휴가, 육아 단축근무 같은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2)

참여자 1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을 아버지가 쓰기 어렵다고 말했고, 참여자 5도 아버지의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사회 시선으로 인해 실질적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참여자 9는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고 임신했을 때 받는 지원금은 부족하다고 했으며, 참여자 13은 회사 규정에서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3일로 정해놔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경험을 이야기했다. 참여자 14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육아지원제도로 육아도우미 등의 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참여자 10은 보육을 위한 지원비가 부족하고 실질적 지원이 약하다고 말했다. 참여자 2는 아버지를 위한 육아휴가, 출산휴가, 단축근무 등의 제도를 마련해줄 길 바랐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정부의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회사의 규정이나 자영업자인 경우, 사회적 시선 등의 원인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법적인 제도 정착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 단축시간 등의 제도 강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은 대체인력 부족과 경제적 지원 부족, 육아휴직수당 부족 등의 제한점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가 변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육아휴직에 대한 월급 변화의 제도를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참여자는 실질적 지원금 제도 정착이 필요하며, 제도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시간과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아버지 영유아 돌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한 법적인 제도 정착의 선결 조건으로 회사와 육아휴직 신청자 모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하고 휴직급여를 충분히 하며, 아울러 자영업자들을 위한 육아 도우미 등의 인력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육아지원제도를 개선점으로 회사와 정부의 연계를 통한 지원, 아버지 육아를 위한 제도의 보완 및 강화를 꼽았으며,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 수준에서 아버지들이 육아지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성들조차 직장 내에서의 입지와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육아휴직제도 등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인 발전을 이뤄 아버지들의 육아지원제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

*각 회사 사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마저 쉽게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 단축시간 등의 제도가 법적으로 강화되어 의무가 되면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참여자 2)

아직까지 아버지들에게 적용되는 영유아 제도들의 개선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제도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탄력근무제를 통해서 회사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4)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당일에 갑자기 연차를 내고 결재받는 일이 회사 눈치도 많이 보이기도 하며 실제로 회사 일에 차질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아플 때 아이들을 대신 돌봐줄 수 있는 서비스와 병원이 연계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자 14)

육아휴직제도를 현실적인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10만 원이라도 지원금을 준다면 국가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질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육아휴직을 쓰지 못할 때 육아지원 중 하나로 휴가 시 사용할 수 있는 호텔, 펜션 할인권과 같은 파격적 할인이나 제안이 있다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참여자 8)

자영업자들에게 출산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식의 자영업자들을 위한 혜택이 커지면 회사원들이 불만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국가에서 좀 잘해서 출생률을 높이면 좋겠어요. 둘째를 가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첫째에 대한 돌봄의 양과 질에 공백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들어 둘째 생각을 접게 돼요.

(참여자 10)

참여자 1은 아버지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참여자 2는 육아지원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참여자 4는 육아휴직을 탄력근무제 등의 도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참여자 14는 회사의 분위기 변화나 병원 연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참여자 8은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현금이나 복지혜택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참여자 10은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혜택을 늘린다면 출산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실제 양육 경험을 통해 육아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었는데, 특히 정

부와 회사의 연계,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등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육아지원제도의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소득 기준 지원금의 개선, 육아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다양화, 휴직급여 증액 등이 제안되었으며, 이와 같은 제도의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육아지원제도의 종류와 새로 도입된 제도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제도를 많이 알려줬으면 해요. 육아지원제도 중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더 확장된 제도적 지원이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자 6)

제도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 육아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 11)

현실적으로 아버지의 급여가 가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도가 개선되어 휴직급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개월 수에 따라 점점 줄어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급여 수준이 편하게 휴직을 할 만큼의 금액이 되지 못해요.

(참여자 13)

정부 차원에서 육아휴직, 육아시간 제공 등 여러 제도를 통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만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돌제를 낳는 데 기여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7)

결국에는 다 돈이에요. 돈과 직장 스트레스가 줄어야 육아 참여도가 높아질 겁니다. 선진국들은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과 같은 복지제도들이 잘 발달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출생률의 차이를 만든다고 봐요. 인건비와도 관련이 있죠.

(참여자 9)

참여자 6은 육아지원제도의 홍보도 중요하고 소득 기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없

애고 지원을 확장해 출산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자 11은 육아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길 바랐으며, 참여자 13은 휴직급여의 액수를 높여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길 바랐다. 참여자 7은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면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고, 참여자 9도 복지제도의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3) 사회적 가치공감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가치공감을 통해 아버지의 영유아 돌봄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회적으로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대해 시선이 개선되고 공동육아를 위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버지가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것이 특별하고 특이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모든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

*아이를 돌보는 일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3)

*부부 공동 육아의 중요성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드릴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7)

참여자 1은 아버지의 자녀 돌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참여자 3도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며, 참여자 7은 공동육아를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이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남성은 육아휴직을 쓰기에 회사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력근무제처럼. 월급은 개인적으로 100%가 좋겠지만 한 달 중 출근한 시간을 특정 기준으로 계산해 퍼센테이지를 적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체력도 보충할 수 있고 업무 컨디션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개선이라면 저는*

육아휴직을 꼭 사용할 것 같고 탄력적인 휴일 출근도 큰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가족과의 시간이 평소에 보장되니까.

(참여자 4)

아버지를 위해서 육아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해요. 특히 사회적 시선의 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두가 육아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어요. 국가에서 공익광고 등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여자 5)

대부분 회사에서 여성의 육아휴직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인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회사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도 월급이 달마다 100%~50%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6)

회사에서 부담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많으면 육아휴직 예정자인 30대들을 기피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회사는 안정감 있는 지원을 원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 개선이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자 11)

특히 남성에게는 육아휴직이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아버지들의 육아참여, 더 나아가 부모들의 육아참여의 질이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참여자 8)

참여자 4는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적용 방안으로 탄력근무제를 제안했으며, 참여자 5는 아버지의 육아지원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익광고를 제안하였다. 참여자 6은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회사가 드물고 월급이 줄어드는 것이 개선되길 바랐다. 또한 참여자 11은 육아휴직 지원금을 회사가 충당하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참여자 8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양육을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혜택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 및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20-30대 아버지의 자녀 돌봄 경험의 의미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아버지가 자녀 돌봄 참여자로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30대 아버지들의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 20-30대 아버지들의 아버지 및 남편으로서의 역할 경험,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주제로 설정하고, 아버지 14명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1) 20-30대 아버지들의 자녀 돌봄에 관한 인식 변화

##### (1) 암묵적 돌봄 방관자

암묵적 돌봄 방관자는 20-30대 아버지들의 경험과 의미 탐색에 있어서 처음 아버지가 된 시점에서 연구참여자들 자신이 경험한 원가족 내의 아버지에 대한 역할 인식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생계 부양 중심’과 ‘가부장적’이었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원가족의 부모역할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가부장적 아버지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아버지를 생계 책임자이자 가정의 보호자, 엄격한 훈육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 남성들의 자녀양육을 남성다움과 연결하지 않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경제부양자 역할이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나타난 현상임을 파악한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나성은, 2014a; 조윤경, 2014). 또한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인 토대 속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가족 내에서 역할의 제약을 받으며 생활하였음을 밝힌 연구 결과와 어머니가 자녀 양육의 소임을 하는 것으로 귀결됨을 주장한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유해미, 2014).

연구참여자들은 원가족의 아버지에 대한 역할 인식을 토대로 아버지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부장적 역할을 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아버지에게는 가정의 경제적 책임이 가장 주요한 역할이고 경제활동이 곧 육아라는 인식이 지배적임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이는 과거 전통사회의 아버지 역할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이 지배적이고, 육아와 가사는 어머니의 역할이 지배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해미(2014)의 과거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 급격한 경제성장과

남성 노동력에 대한 우월화 등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었음을 주장한 연구 결과와 고용노동부(2014)의 산업화 시대 남성의 주요 미덕은 기업에 충성하며 하루종일 일에 몰입하는 것이었기에, 보편적인 가정에서 자녀들은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성장했음을 밝힌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그리고 윤미화(2016)의 경제성장이 주요 목표로 간주되었던 시기에 가족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은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책임지는 생계부양자로서 역할이 강조되었다는 연구 결과와 홍승아, 이인석(2012)의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전통적인 성 분업 구조에서 자녀 양육의 책임이 여성의 책임이었고, 남성은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경제적 요구를 달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을 밝힌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20-30대 아버지들은 원가족 경험을 통해 가부장적인 아버지 역할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아버지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를 엄격히 훈육해야 한다는 측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연구참여자들은 시대의 변화에 공감하고 공동 육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으며, 놀이를 통해 자녀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모습은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과도기적 아버지 역할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계책임자와 엄격한 훈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원가족 아버지에게 대한 경험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적극적 자녀 돌봄에 대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겪는 이중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적극적 돌봄 참여자

적극적 돌봄 참여자는 처음 아버지가 된 20-30대 아버지들의 경험에서 처음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과 적극적인 자녀 돌봄에 대한 경험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러한 경험에 나타난 현실적 어려움 역시 포함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아버지로서의 역할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고, 부부관계도 수평적이고 동등하게 바뀌었으며 가사와 육아를 평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적극적 돌봄 참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경험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첫 단추’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화 형성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연구참여자들은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즉,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적극적 돌봄 참여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원가족 경험에서 습득한 아버지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 아버지 역할의 경험이나 육아 정보의 부족 등을 이유로 자녀 돌봄에 참여하기 힘들어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맞벌이 가정 증가와 핵가족으로 인한 자녀 돌봄이 부부 공동의 역할로 인식을 하고 있으며, 현실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의 자녀 돌봄의 이해의 인식이 저조한 편임을 밝힌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박중서 외, 2018; 서석원, 이대균, 2014). 또한, 아버지들이 현실에서 자녀 돌봄에 대한 아버지의 양성평등 인식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관한 역할 습득에서는 부족한 것이라 보고한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이연승 외, 2018).

그리고 아버지만이 생계부양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던 것이 무색해진 시대적 배경과 최근 맞벌이 부부가 점차 증가하고 남성의 양육참여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의 아버지 역할 정체성은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을 주장한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최미숙, 송순옥, 2014; 최항준, 최선녀, 임현주, 2013). 특히,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아버지 효과(fathering effect)’를 지지한다(Brandth & Kvande, 2015). 더욱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단지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를 훈육하는 제한적 역할에서 자녀 양육 및 가족생활에 적극 참여하는 친밀한 아버지로 변화되고 있음을 주장한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서진영, 2015).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20-30대 아버지들은 자녀 돌봄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신의 개인적 환경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아버지들이 자녀양육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양육전략을 수립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밝힌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김경숙, 2015). 그리고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각 시기마다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잘 형성하고 있고, 아버지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배우자의 삶의 질과 자녀의 올바른 성장에 필요한 제도적·교육적 방향성이 필요함을 밝힌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Andersen, 2015).

요컨대 20-30대 아버지들은 적극적 돌봄 참여자로서의 경험이 자신의 정서적 발달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이 자녀 돌봄에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버지의 자녀 돌봄 및 가사참여 경험은 개인적 특성과 가족 상황 그리고 사회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 돌봄 가사참여 경험에의 저해요인을 면밀히 고찰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 2) 20-30대 아버지들이 경험한 ‘아버지로서의 역할’

### (1) 아버지로서의 역할

본 연구 결과, 20-30대 아버지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놀이 친구’, ‘추억 저장소’, ‘발달 조력자’로 정리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돌봄에 참여하면서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였으며, 주로 놀이 친구의 역할을 많이 하였다. 또한, 자녀와 추억을 만드는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아이와 함께 하는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거나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자녀 양육에 참여하고 일상생활과 놀이를 함께 하면서 교육적으로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원가족 경험에 따라 엄격한 훈육자로서의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자신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녀 양육을 부모가 함께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육아에 참여하는 아버지가 늘어나고 있음을 밝힌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이모아, 2010). 또한 맞벌이 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육아 참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에서 맞벌이 아버지가 외벌이 아버지보다 자녀 육아 참여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김진욱, 권진, 2015; 이국희, 2014). 아버지 역할은 직장에서 가정으로, 어머니 역할은 가정에서 직장으로 확대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평등한 부부관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고가연, 2015; 김진욱, 권진, 2015; 나성은, 2014b). 최근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에게 관한 연구에서 현대 이상적인 아버지상은 다정다감한 아버지이며, 바람직한 아버지 역할은 놀이상대자로서의 아버지, 상담자로서의 아버지, 정서적 지원자로서의 아버지임을 밝히고 있다(김영옥 외, 2014). 무엇보다 본 연구참여자들도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 대상자인 20-30대 아버지들은 아버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이유로 경제적인 문제, 정보 부족, 회사 업무 그리고 아이와의 시간이 맞지 않음 등을 언급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20-30대 아버지는 회사 업무 때문에 평일에는 저녁 이후에나 육아에 참여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잔업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도 증가 등이 적극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힘들게 하는 원인으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가연(2015)의 육아기 아버지들은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토로한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원인을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육아로 일자리를 잠시 떠나있어도 눈치 보지 않는 직장 분위기가 필요함을 지적한 연구 결과

를 지지한다(고용노동부, 2015; 안수미, 2013). 그리고 본 연구 결과는 아버지의 자녀 돌봄 참여가 힘든 이유에 관해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 부분에서 어머니보다 익숙하지 못하고(유해미, 2014), 어머니에 비해 시간 할애도 부족한 편(김진욱, 고은주, 2014)이며, 자녀와 시간을 가지기 위해 프로그램, 육아 정보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습득도 어렵고, 직장에서의 장시간 근로와 지원제도 사용 미흡 등으로 육아참여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최숙희, 2012)이라고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맥을 같이한다.

정리하면, 20-30대 아버지들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어렵게 만드는 데는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참여자인 20-30대 아버지들은 이를 개인 영역의 문제점이기보다는 사회적 제도와 인식의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20-30대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자녀 돌봄 참여에 깊이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환경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이에 관한 실질적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대 아버지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 환경 문제점 개선과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남편으로서의 역할

본 연구 결과, 20-30대 아버지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아내 마음에 스며들기’, ‘아내의 손발 되어주기’로 정리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출산과 육아로 힘든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처가의 일을 술선수범하여 보살피는 경험을 언급하고 있으며, 아내가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이의 해소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등의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자녀 돌봄에 관하여 항상 아내와 소통하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성심을 다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재의 20-30대 아버지는 역할 정체성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경제적 책임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20-30대 아버지의 역할이 여성 인권 향상, 성평등, 동등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에 있음을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맞벌이 가정, 여성의 높은 사회참여율 등을 이유로 아버지로서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더욱이 20-30대 아버지들은 자녀 돌봄이 자녀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자녀 돌봄도 중요하지만 부부의 행복도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아버지의 자녀 돌봄의 참여는 자녀에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 중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양육하는 태도가 긍정적이며 아버지 자신이 아버

지 역할에 대해 더 만족할수록 어머니의 수용적이고 더 자율적인 자녀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장재홍, 김태성, 2002). 또한 이러한 행위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힌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손영빈, 윤기영, 2011). 무엇보다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아내에게 만족감을 높여주고 이들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이희선, 이윤나, 2014; 조해연, 유준호, 2021).

또한 본 연구에서 20-30대 아버지들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부부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20-30대 아버지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아내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면서 얻게 되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도 있음을 피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가정 안에서의 아버지 역할이 단순한 생계부양자가 아니라 공동 양육자와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확대된 것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아버지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배우자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권미경 외, 2016). 더욱이 아버지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아내와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연구 결과(권미경 외, 2016)와 영아기에 남편으로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데 중요함을 밝힌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이연승 외, 2017).

정리하면, 이처럼 영유아 자녀를 둔 20-30대 아버지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아버지의 육아 참여 중요성에 귀결됨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20-30대 아버지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자녀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아내의 요구사항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 그리고 자녀와 아내의 안녕과 복지에 관련된 행동의 일체를 포함하는 개념을 지지한다(김영옥 외, 2014; 정한나, 2012). 하지만 본 연구 결과, 20-30대 아버지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세대별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20-30대 아버지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한국 사회에서 남성 육아 참여를 저변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남성 육아 참여에 대한 인식과 태도, 아내의 요구사항 등을 통하여 현재 실태와 향후의 개선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3)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방안

#### (1) 스스로 성장하는 아버지

20-30대 아버지들은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방안’으로 ‘스스로 성장하는 아버지’로서 ‘자녀 돌봄을 위한 적극적 노력’과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성장하는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자녀 돌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경제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스스로의 의지를 강하게 다지고 육아 참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녀와 아내를 위해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버지의 적극적 자녀 돌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적극적인 자녀 돌봄 참여자로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효율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학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밝힌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유해미, 2014). 또한, 실효성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 선행 연구 중 육아 지원제도 의무화와 이의 이행실태에 관한 경제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한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이정원 외, 2014).

20-30대 아버지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휴식 시간에 게임이나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의 계기로 삼아 육아와 가사에 참여할 힘을 얻는다고 했으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20-30대 아버지들이 개인적 휴식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아버지의 긍정적인 자녀 돌봄을 위해서는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지원이 적절히 조화롭게 달성되어야 하고 현실에서의 자녀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었을 때 스스로 성장하는 아버지로서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2) 자녀 돌봄을 위한 사회적 지원

본 연구 결과, ‘자녀 돌봄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으로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법적 제도 개선’, ‘사회적 가치 공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관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하며, 육아지원제도

에 대한 홍보나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육아지원제도를 개선점으로 회사와 정부의 연계를 통한 지원, 아버지 육아를 위한 제도의 보완 및 강화를 꼽았으며,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공감을 통해 아버지의 영유아 돌봄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회적으로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대해 시선이 개선되고 공동육아를 위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20-30대 아버지들은 자녀 돌봄에 대한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며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김진옥, 고은주(2014)의 20-30대 아버지로서 자녀 돌봄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부부공동 양육에 대한 회사의 부족한 인식으로 인해 적극적인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밝힌 연구 결과와 김낙홍(2011)의 바람직한 아버지의 역할과 함께 아버지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고충과 사회적인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나성은(2014b)의 맞벌이 부부인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 휴직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 결과와 이연승외(2018)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영유아 돌봄 수행 시 어려운 점이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량과 늦은 귀가 등으로 아버지의 육아 휴직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20-30대 아버지로서 법적인 제도 정착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 단축시간 등의 제도 강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대체인력 부족과 경제적 지원 부족, 육아휴직수당 부족 등의 제한점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가 변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육아휴직에 대한 월급 변화의 제도를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참여자는 실질적 지원금 제도 정착이 필요하며, 제도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시간과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정리하면, 20-30대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지원은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법적 제도 개선', '사회적 가치 공감'으로 확인되었다. 영유아를 둔 아버지의 자녀 돌봄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자녀 돌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 정착의 선결 요건은 회사와 육아휴직 신청자 모두 피해를 보지 않게 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과 휴직급여의 충분한 제공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육아 도우미 등 인력 지원제도 등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30대 아버지의 자녀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30대 아버지의 자녀 돌봄 가사참여 경험의 출발점은 출산과 자녀 돌봄이 부부 공동의 역할로 인식의 공감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물론, 20-30대 아버지의 자녀 돌봄 가사참여 경험은 개인적 특성과 가족 상황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짐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적극적인 20-30대 아버지의 자녀 돌봄 참여를 위하여 이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특히, 20-30대 아버지의 적극적인 자녀 돌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부재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들의 자녀 돌봄 참여를 위해서 정보와 교육의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20-30대 아버지를 위한 자녀 돌봄과 관련된 각종 후생복지 프로그램과 부부 공동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영유아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부 공동 자녀 돌봄 프로그램과 건강회복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20-30대 아버지의 자녀 돌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아버지 개인 영역의 문제이기보다는 사회 제도의 열악함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20-30대 아버지는 일의 영역과 적극적인 자녀 돌봄 참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의 부족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적극적인 20-30대 아버지의 자녀 돌봄을 위하여 남성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노동 환경의 문제점 개선과 20-30대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실에서 나타난 다양한 직업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30대 아버지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저해 원인을 자녀 돌봄에 대한 직장 내 부정적 시선이 존재한다는 점을 꼽고 있었다. 이는 다양한 직장 내 업무와 양육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고, 국가의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를 통해 아버지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 정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20-30대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우호적인 직장문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언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 20-30대 아버지 역할과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14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연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양적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참여자의 거주 지역은 울산 지역으로 제한되어 전국의 20-30대 아버지를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를 확대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모색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20-30대 아버지의 자녀 돌봄을 위한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법과 제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20-30대 아버지들의 아버지로서 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하고 아버지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 대상 지역과 연구참여자를 확대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고 구체적인 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를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 참 고 문 헌

- 강기숙, 한유미 (2010). 영아의 발달과 어머니의 양육지식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6), 71-80.
- 강민성, 김경은 (2017).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4(3), 19-35.
- 강수경, 김민정, 정미라 (2015). 아버지의 공감능력에 따른 양육참여가 만 1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육아지원학회 학술대회지**, 107-113.
- 강현식 (2011).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빠 양육**. 서울: 소울메이트.
- 고가연 (2015). 육아휴직을 받은 아버지의 양육경험.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용노동부 (2012). 남성 육아휴직자 빠르게 증가. 보도자료.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14). 아빠는 육아초보 : 2014년 아빠육아휴직 체험수기.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15). 2015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세종: 고용노동부.
- 공진수 (2006). 아버지됨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서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권미경, 최은영, 김나영, 김혜진, 임준범 (2016).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수탁연구보고서, 15, 1-174.
- 권영임 (2012).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6(2), 125-142.
- 김경근 (2016). 한국사회 교육열의 동인, 유산, 승화방안에 대한 탐색적 고찰. **교육학연구**, 54(1), 229-257.
- 김경숙 (2015).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아버지 되어가기'.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은, 김연아 (2017) 국내 아버지 관련 연구 동향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4(2), 1-18.
- 김경자 (2003).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분화가 가족체계기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광웅 (1999). 한국 전통가정교육의 원리. **강남대학교 인문과학논집**, 8(1), 237-261.

- 김낙홍 (2011). 바람직한 아버지의 역할과 역할수행의 어려움, 사회적 지원에 대한 고찰.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2), 79-98.
- 김민정 (2015).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육아휴직 경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산하 (2015).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행복감의 관계.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민 (2018). 아버지의 양육경험에 따른 양육참여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 (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의 실태와 요구도 조사.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영 (2004).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이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이, 전정민, 강혜경 (2013). 유아와 아버지 놀이 참여간의 가상놀이 유형 및 유아 혼자 놀이간의 차이 분석: 탐험, 복합, 상징놀이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7(3), 385-409.
- 김연진 (2013).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통한 젠더체계 메커니즘과 변화에 관한 연구 : '보편적 돌봄'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진, 김수영 (2015). 남성의 육아휴직 경험에 대한 연구: 이분법적 젠더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6(4), 285-319.
- 김영숙 (2007).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 김택면, 강민정, 임희정, 나성은 (2014).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고용노동부.
- 김영천 (2013).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희 (200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 행동 유형.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5(1), 55-65.
- 김은설 (2012). 아버지의 육아참여, 아이를 행복으로 이끄는 조건. 육아정책 Brief, 4.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재엽, 김희진, 최장원 (2010). 직장 남성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와 아내 폭력의 관계에서 나타난 긍정적 의사소통(TSL)의 조절효과. **한국소통학보**, 13, 39-70.
- 김정주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아동기경험이 아버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훈, 양소영, 성지현(2012).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후속출산계획

- 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매개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4(1), 87-102.
- 김진옥, 고은주 (2014). 맞벌이 부부의 가정 내 무급노동시간 영향요인 국가비교: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사회복지정책**, 41(2), 185-212.
- 김진옥, 권진 (2015).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정책**, 22(3), 265-302.
- 김진혜 (2009). 아버지의 놀이참여 및 놀이성과 유아의 리더쉽과의 관계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력 (201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부모효능감이 유아의 놀이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 (2011). 영유아기 아버지교육에 대한 참여 실태와 요구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선 (2005). 첫 아버지됨의 체험. **아동학회지**, 26(5), 73-87.
- 나성은 (2014a).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신 도구적' 부성의 구성: 30-40대 중간 계층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성은 (2014b). 남성의 양육 참여와 평등한 부모 역할의 의미 구성. **페미니즘연구**, 14(2), 71-112.
- 도남희 (2013).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필요. 육아정책 Brief. 17.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박성덕, 서연실 (2016). 어머니가 인지한 아버지 양육참여 및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6(2), 193-212.
- 박정자 (2010).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이 맞벌이 직장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서, 변수정, 조성호, 이재량, 박건 (2018). 출산 및 양육의 사회·문화적 환경 분석 (연구보고서 2018-22-6-2).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찬우 (2017). 스포츠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경험과 의미 탐색 -Y유소년 야구 클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선 (2016). 아버지의 원가족 양육경험과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한별 (2007). 기혼남성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아버지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호중 (2015). 맞벌이 가구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홑벌이 가구 남편과 비교를 중심으로

- 로. **사회과학연구**, 31(4), 151-181.
- 백진아 (2009). 기혼 남성의 부성과 가족 경험. **현상과인식**, 33(4), 163-186.
- 변명숙 (2005). 부모의 성역할 유형과 양육방식이 아동의 성역할 특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명석 (2009). 동양의 양육전통인 엄부자모를 둘러싼 시선과 눈짓. **교육사상연구**, 23(1), 127-140.
- 서석원, 이대균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157-178.
- 서진영 (2015). 아버지 양육 및 놀이참여와 유아 행복감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지연 (2012).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소영 (2013). 아버지 역할이 나타난 TV 광고 분석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4(5), 219-227.
- 손순복 (2016). 영유아 아버지의 아버지 역할훈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3), 197-220.
- 손영빈, 윤기영 (2011). 아버지의 역할지각,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05-126.
- 송나래 (2018).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지은 (2017). 유아용 국내 창작 그림책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립 (1998). **내면을 보는 눈: 인터뷰**. 서울: 하나의학사.
- 신용주 (2012). 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에 대한 성인교육적 함의.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5(2), 85-104.
- 안수미 (2013).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와 자녀 양육 시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진민 (2012).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셀프리더십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문희, 박남숙 (2001). 교육과 상담에서의 질적 연구. **연세교육연구**, 14(1) 243-263.
- 오미희 (2018). 한국과 일본의 아버지 자녀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연구**, 65, 121-139.
- 유동미 (2003).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정도와 부모교육 요구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안진 (1986). 한국의 전통육아 방식. **서울대학교 출판부**.

유은정 (2015). 아버지의 아동기경험 및 양육참여와 부-자 정서적 상호작용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해미 (2014). 남성 대상 양육지원 사업 현황 및 강화 방안 (이슈페이퍼 2014-13).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 김문정 (2013).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포럼**, 37, 20-31.

윤미화 (2016). 아버지 자녀 양육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육아휴직자 가족을 대상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영주 (2014). 놀이하는 아빠로서의 지나온 경험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혜진, 허영립 (2014).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국내학술지 연구동향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5(4), 449-460.

이계학 (2000). 한국의 전통 가정교육과 종교. **한국종교교육학회**, 10(1), 7-28.

이국희 (2014). 양성평등한 일·가정양립을 위한 한국의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입법모델. **사회보장법학**, 3(2), 119-138.

이명선, 고문희, 손행미, 김주현, 강성례, 오상은, 장혜영 (2018). **질적연구 수행하기**. 파주: 수문사.

이모아 (2010). 부모의 양육지식과 양육참여가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현 (2014).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참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배, 김경숙 (2013).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유아 놀이성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아동교육**, 22(3), 191-206.

이세미 (2007). 젊은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연구. **학생생활연구**, 20, 99-113.

이숙현, 권영인 (2009). 기업의 가족 친화적 문화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가족과 문화**, 21(1), 1-28.

이연승, 김현정, 최진령 (2017). 자녀양육지 지원제도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 및 요구-부산지역 아버지를 대상으로. **유아교육연구**, 37(5), 549-564.

이연승, 김현정, 최진령 (2018). 아버지의 육아참여에 대한 인식, 실태 그리고 어려움. **유아교육연구**, 37(4), 811-829.

이옥순 (2011). 가족친화제도와 남성 근로자의 일-가족 갈등, 직무 만족도 및 생활 만

- 죽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이 (2007).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 이태영, 전우경, 강정원 (2017). **영유아교사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이운진 (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재성, 문영경, 최형임 (2012).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1(2), 233-246.
- 이정원, 유해미, 김문정 (2014). 1명의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육아정책연구**, 8(1), 47-80.
- 이종미 (2013).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유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순, 김규수 (2008). 아버지의 놀이참여 수준 및 자녀관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3(5), 119-131.
- 이종승 (2008). **교육·심리·사회 연구방법론**. 파주: 교육과학사.
- 이지연 (2022). 유아가 지각하는 아버지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숙 (2012).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주도성과의 관계 연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지각과 양육 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선, 이윤나 (2014).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직업역할 만족도 및 부모역할 만족도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2), 193-212.
- 임선희 (2018).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 됨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재홍, 김태성(2002)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자녀양육태도 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지**, 10(2), 123-139.
- 장지연 (2014). 남성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방향. **월간 한국노총**, 500, 36-37.
- 장효은, 김춘경 (2018). 영아기 아버지 양육참여,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영아 심리사회 발달과 유아기 또래상호작용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8(1), 77-10.
- 전홍주, 조수경, 김미정, 최항준 (2014). 아버지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가 영아발달특성 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5), 2678-2688.
- 정금자, 박미라 (201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도덕성과의 관계. **한국영**



유아보육학, 80, 43-64.

- 정미라, 김민정, 강수경 (2016). 아버지 공감능력, 양육참여 및 영아기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에 관한 연구. **육아지원연구**, 11(1), 53-71.
- 정우영, 김희영 (2018).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어린이미디어연구**, 17(3), 75-101.
- 정한나 (2012). 아버지의 근무환경 및 역할 신념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연 (2005). 아버지의 역할 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남, 이현주, 주영주, 김나영 (2011). **질적연구방법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그린.
- 조성희 (2011). Bowen의 자기분화 개념에 근거한 어머니의 양육 경험 탐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운경 (2014).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아버지 양육의 변화. **한국융합인문학**, 2(1), 83-112.
- 조재숙, 박재학(201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참여 조절효과. **Global Creative Leader**, 7(2), 1-20.
- 조해연, 유준호 (2021).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모역할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 609-622.
- 주정혜 (2012). 아버지 양육참여와 만 2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과의 관계.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숙, 송순옥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1), 313-332.
- 최숙희 (2012). 가족친화환경조성과 일가정양립정책 확산방안. 가족정책포럼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정책방향과 추진과제'자료.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정책전략센터.
- 최영미 (2018). 만3~5세 자녀를 둔 저소득가정 맞벌이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항준, 최선녀, 임현주 (2013). 어머니의 양육행동,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76(1), 49-72.
- 최화자, 이하원 (2019).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사회복지연구**, 9(2), 77-94.
- 한명숙(2007). 아버지의 놀이 참여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

- 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영립 (2006).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26(1), 97-116.
- 홍승아, 이인석 (2012).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황동진(2020). 한국의 성역할 이데올로기 변화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정해 (2003).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남성의 부성경험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정해, 이정덕 (2000). 남성의 아버지됨 경험에 관한 연구: 취학 전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43-65.
- Andersen, A. (2015). Making space for fatherhood in gay men's live in Norway. In G. Eydal & T. Rostgaard(Eds.). *Fatherhood in the Nordic welfare states* (pp. 231-250). Bristol: Policy Press.
- Brandth, B., & Kvande, E. (2015). Parental leave and classed fathering practices in Norway. In G. Eydal & T. Rostgaard(Eds.). *Fatherhood in the Nordic welfare states: Comparing care policies and practice* (pp.121-140). Bristol: Policy Press.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Braun, V., & Clarke, V. (2012). Thematic analysis. In H. Cooper, P. M. Camic, D. L. Long, A. T. Panter, D. Rindskopf, & K. J. Sher (Eds.), *APA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psychology, vol. 2: Research designs: Quantitative, qualitative, neuropsychological, and biological* (pp. 57-7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abrera, N., Tamis LeMonda, C. S., Bradley, R. H., Hofferth, S., & Lamb, M. E. (2000). Fatherhood in the twenty first century. *Child Development*, 71(1), 127-136.
- Connell, R. W., & Messerschmidt, J. W. (2005). Hegemonic masculinity: Rethinking the concept. *Gender & Society*, 19(6), 829-859.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 Dermott, E. (2008). *Intimate Fatherhood: A Sociological Analysis*. New York: Routledge.

- Gray, P. B., & Anderson, K. G. (2011). **아버지의 탄생: 진화론, 비교생물학 등으로 살펴 본 아버지의 본질** (한상연 역). 서울: 초록물고기. (원전출판 2010년)
- Lamb, M. E. (Ed). (2010). *The effects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4th ed). Hoboken, NJ: Wiley.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ionalistic inquiry*. Newberry Park. CA: SAGE.
- McGill, B. S. (2014). Navigating new norms of involved fatherhood: Employment, fathering attitudes, and father involve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35(8), 1089-1106.
- OECD(2001). Starting strong 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aris.
- OECD (2015).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Available at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 Parke, R. D. (1989).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 (김성봉 역). 서울: 샘터사. (원전출판 1981년)
- Pleck, J. H. (2010). Paternal involvement: Revised conceptualization and theoretical linkages with child outcome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pp. 58-93).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Pruitt, M. K., Nangle, B., & Bailey, C. (2000). Divorcing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in the court’s family services unit profiles and impact of services. *Family Court Review*, 38(4), 478-500.
- Townsend, N. W. (2002). *The Package Deal: Marriage, Work and Fatherhood in Men’s Live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 동 의 서

본 질문은 『20-30대 아버지의 자녀 돌봄 경험과 의미 탐색』에 관한 연구 관련 설문에 참여하는 것은 위 설문에 동의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나는 연구 진행 중 연구 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참여자 성명 :

연락처 :

소속 :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연구자 : 박상욱 (010-\*\*\*\*-\*\*\*\*)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였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나에게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나는 언제라도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날짜 :       년       월       일                   서명 :

## 20-30대 아버지들의 자녀 돌봄 경험과 의미 탐색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은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 돌봄 경험과 의미 탐색 연구에 대한 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고 인터뷰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소신껏 생각하시는 것을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상세하게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12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석사과정  
박 상 욱

※ 설문지 문의 : 박상욱(010-0000-0000)

### I.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란에 설명을 해주세요.

1. 귀하의 연령은 어떠합니까? ( )
2. 귀하의 ① 맞벌이 여부 ② 학력 ③ 가족 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맞벌이 여부:
  - ② 학력:
  - ③ 가족유형:
3. 귀하의 ① 자녀연령 및 수 ② 근무형태 ③ 하루평균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자녀연령 및 수:
  - ② 근무형태:
  - ③ 하루평균 근무시간:

## ABSTRACT

### A Study on the Child Care and Its Meaning for Fathers in Their 20s and 30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child care of 20s and 30s fathers with young children in modern society by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20s and 30s fathers. Based on this, it was attempted to present basic data on how to support fathers in raising their childre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hat is the change in perceptions of 20s and 30s fathers regarding child care', 'what is the role of fathers and husbands of 20s and 30s fathers? A research question was established, 'What is the plan to become a better father?'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4 fathers with young children from December 2021 to January 2022. As the data analysis method, Braun and Clarke (2006)'s 6-step procedure of topic analysis, which is useful for revealing the meaning of a common topic for a major phenomenon of interest, was applied. Through this research process, we explore the meaning of child care perceived by 20s and 30s fathers, 'role as a father', 'role as husband', and 'how to become a better father' experienced by 20s and 30s fat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erceptions of 20s and 30s fathers regarding child care were found to be 'tacit caring bystanders' and 'active caring participants'. The study participants recognized the father's role as a 'patriarchal' and strict discipliner, taking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livelihood' and not participating in childrearing based on their experiences with fathers in their original family. However,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times, they had the will to become an active care participant.

Second, the 'role as a father' experienced by 20s and 30s fathers was 'playmate', 'memory storage', and 'developmental helper', and 'role as a husband' was 'permeated into the wife's heart', 'Becoming his wife's hands and feet' appeared. The study participants played the role of playmates in caring for children, recorded memories with their children, and were interested i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Also, as a husband, he was always trying to

check his wife's heart and resolve her grievances. In addition, he tried to become his wife's hands and feet, share the housework, and relieve the wife's arduous childrearing.

Third, They mentioned the need for 'active efforts to take care of children' and 'rest and recharge' in order to become a 'self-growing father' as 'a way to become a better father'. And it was found that 'active publicity and education', 'improvement of legal system', and 'sympathy with social values' are necessary for 'social support for child ca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ays to support the childcare of 20s and 30s fathers are as follows. First, it suggests that information and education for child care needs to be provided in order to support the will of 20s and 30s fath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child care and to help them with child care.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provide various programs to support child care. Second, 20s and 30s fathers cited lack of time due to economic activities as a factor hindering child care. In particular, a specific and practical childcare support system should be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occupational conditions. Such institutional support should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e culture that supports childcare in the workplac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basic data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20s and 30s fathers in caring for their children and their meanings, and to prepare a plan to support the father's role.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suggest a plan to support the active child care participant role of 20s and 30s fathers with young children.